

이어도공화국 ⑥
서천꽃밭 달문 moon

이여도공화국 ⑥ 서천꽃밭 달문 moon

시산맥 기획시선 101

초판 1쇄 발행 | 2023년 05월 20일

지은이 배진성

펴낸이 문정영

펴낸곳 시산맥사

편집주간 김필영

편집위원 신정민 최연수

등록번호 제300-2013-12호

등록일자 2009년 4월 15일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1102호



전화 02-764-8722, 010-8894-8722

전자우편 poemtss@naver.com

시산맥카페 <http://cafe.daum.net/poemmtss>

ISBN 979-11-6243-368-3 03810

값 10,000원

* 이 책은  제주특별자치도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발간되었습니다.

* 이 책은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시산맥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교보문고와 연계하여 전자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문 페이지에서 한 연이 첫 번째 행에서 시작될 때에는 < 표기를 합니다.

* 저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보조 동사와 합성 명사는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여도공화국 ⑥
서천꽃밭 달문 moon

배진성 시집

무화과, 꽃이 나에게 말을 한다

사람들은 꽃이 없는 줄 알지만, 꽃이 너무 많아서 숨겨
두었지, 꽃이 너무 붉어서 숨겨두었지, 너에게만 남모르
게 보여주려고, 깊이깊이 더 깊숙이 숨겨 두었지, 너에게
만 살짝이 길을 알려줄게, 너에게만 온전히 꽃을 보여줄
게, 오직 너에게만 나의 사랑을 줄게

무화과, 열매가 너에게 말을 한다

너에게만 보여주려고 숨겨둔 꽃, 너에게만 열어주려고
닫아둔 문, 너에게만 달려가고픈 사랑의 발, 너에게만 안
기고 싶은 나의 가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
무리 기다려도 너는 보이지 않고, 새들이 쪼아대고 뱀이
파리를 틀어, 홀로 익어버린 사랑 터질 것만 같아

2023년 봄여름
이어도공화국에서 배진성

■ 차례

시인의 말	11		
세한도	18	탐라국 입춘굿	50
봄	20	달문moon	54
심장의 춤	22	발자국 밟그릇	56
숨결	24	다랑쉬	58
심재산방	26	무명천 할머니	60
굽병이의 꿈	28	동백동산	62
등이 환하다	29	성읍민속마을 느티나무	64
심우도	30	가시리에서 대평리를 노래하다	66
참과 등나무	32	동광 양잠단지	68
시집	34	김광종영세불망비	71
새집	36	서귀포 징검다리	74
깊은 밤 산책	38	서북과지	80
두부가 된다는 것은	40	생수괘	82
메별	43	해녀	84
어금니	44	섬의 뿌리	86
용	47	덜컹	88
서귀포 칠십리 시 공원	48	하루	90

산과 바다	91	큰넓궤	119
용수철 부처	92	헛묘 1	121
달과 소나무	94	4월	122
꿈	96	서서 흐르는 강	124
소망	98	동백	126
그믐달	99	먹구실낭	128
잡든 영혼에 불을 땡기다	100	탑	130
뼈와 인대	102	워싱턴야자수	131
딸꾹질	103	돌	134
알	104	바람의 말	136
관덕정	106	잘 안다	138
폭낭과 야유나무	108	알뜨르비행장 파랑새	140
백비	110	등에 기대다 1	141
불칸낭	112	등에 기대다 2	142
한라산 어욱새	114	꽃을 심다	144
섯알오름	116	연	146
새별오름	118	이리 붙어라	147

가을	148
헛묘 2	150
나는 너를 걷는 사람	152
바다의 결	154
등근 집	156
떨켜	158
시인	159
대나무	160
소와 달구지	162
천년폭낭	164
제주의 사계	170
여수 가는 길	172
은하수 뿌리	174
종석산 정읍사	176
허그	178
뱀	180
탱자나무	182

무화과나무	184
오메기	187
노아의 방주	190
탐라국 창세기	192
말	194
고양이	195
길	196
놀란흙	198

세한도

심장내과 복도에는 어둠이 쌓여 있다
나의 하느님이신 원장님께서 문을 열고 불을 켜다
잠시 후에 천사들이 들어오며 출근 체크를 한다
피를 뽑아 검사하는 동안 나는 세한도를 본다
늙은 한 그루는 소나무가 분명한데
젊은 세 그루는 소나무일까 잣나무일까
나무들보다 둥그런 문이 더 궁금하다
보름달 안에서 반달이 보인다
초승달과 그믐달도 보인다
그 문에서 나의 반월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대동맥판막 반월문에서 시계소리가 들린다
반월산에 나란히 누워계신 반달 두 개도 보인다
엎어놓은 반달의 잔디 위에도 눈이 쌓여 있으리라
아직은 나의 반달문이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있으리라
금속으로 만든 반월 문짝이 빠지는 일도 있으리라
문짝이 칼이 되어 대동맥을 갈라버릴 수도 있으리라
문을 지나가는 피가 떡이 되어 핏줄을 막아버릴 수도
있으리라
혈전이 뇌로 가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
비트코인처럼 빛나던 문이 악귀의 입처럼 변할 수도

있으리라

아, 나는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문이 가장 무섭다
아,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달이 가장 무섭다
나는 나의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아들고 나온다
세한도 밖으로 폭설은 멈출 줄 모르는데
늙은 소나무 한 그루 아직은 잘 살아가고 있다
장무상망(長毋相忘), 나의 붉은 피로 붉은 낙관을 찍는다

봄

봄이 오고 있다

봄을 본다

봄이 봄으로 보인다

봄이 봄으로 보인다

봄이 봄으로 보인다

해가 조금씩 일찍 온다

해가 조금씩 늦게 간다

해를 보려고 새싹이 돌아난다

해를 보려고 풀들이 자라난다

봄은 봄(春)이다

봄은 청춘이다

봄은 스프링(spring)이다

봄은 퐁퐁 튀어 오른다

봄은 봄(bomb)이다

봄은 펑펑 터진다

봄이 왔다

봄이 봄으로 보인다

나도 이제 봄이다

봄이 환하게 핀다

심장의 춤

심장과 함께 걸어 보니 잘 보인다
심장의 춤사위는 참으로 황홀하다
심장은 두근두근 뛰지 않는다
동방결절에서 전기 신호를 받는다
우리들의 심장은 최첨단 발전소다

두방두심 두방두심
심방심실 심방심실
들어옴나감 들어옴나감
드롭나감 드롭나감
나의 심장은 이렇게 춤춘다

심장은 마음이어서
마음으로 춤춘다
전기로도 춤추고
자율신경으로도 춤추고
호르몬으로도 춤춘다

심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장은 가슴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다

심장은 마음이어서
온몸에 있다
온몸이 심장이고
온 마음이 심장이다

나의 심장은 나에게만 있지 않다
나의 심장은 이제 너에게도 있다

너는 나의 심장이고
나는 너의 심장이다

나의 심장이 똥똥똥 북을 치며 오고 있다

숨결

누워서 가만히 내 숨을 본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허공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나의 숨결이 하늘을 데워준다
당신의 숨결이 내부로 들어와
나의 아픈 어깨를 주물러주고
나의 아픈 심장을 어루만져주고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살려준다
하느님의 숨결과 부처님의 숨결
나무들의 숨결과 풀꽃들의 숨결
우주가 문 없는 코로 들어온다
허파를 지나서 심장을 지나서
혈관을 지나서 세포를 지나서
미토콘드리아를 지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깊고 아름다운 우주의 긴 여행
당신과 나는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우주의 숨결로 만난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물구나무서서도
나는 가만히 당신의 숨결을 본다

십재산방

십재산방에서 보니
나와 식물이 하나로 보인다
마음을 굽어보니
몸의 속까지 다 보인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있고
사람의 뿌리는 가슴속에 있다
나무의 뿌리는 머리카락처럼 무성하고
사람의 뿌리는 알뿌리처럼 둥그렇다
알뿌리 같은 심장이 땅에 묻혀도
나의 가슴에는 피가 잘 돌아
나의 생각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잘 자랄 것만 같다
너털너털한 대동맥판막, 망가진 심장도
땅속에서는 뿌리를 잘 내릴 것만 같다

좌망정에 앉으니
계곡에 숨겨놓은 배도 보이고
늪에 감추어둔 그물도 보인다
월라봉에서 날아오는 학의 긴 다리도 보이고
바다로 날아가는 오리의 짧은 다리도 보인다
산방산에 눌러앉은 구름도 보이고

강정으로 실려 가는 마징가 같은 케이슨도 보인다
십재산방 좌망정에 앉아 눈을 감으니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천년의 강물에 빈 배 하나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
빈 배 가득 하늘이 실려 간다

곰뽕이의 꿈

이른 봄 배추밭을 파니
지렁이와 함께
곰뽕이들이 많다
푸른 젊음을 벗고 노랗게 익은 배추벌레들이 많다
아직 날개는 보이지 않는다
나비가 되어 날고 있는 꿈을 꾸고 있을 곰뽕이들이
강아지 배 속으로 들어간다
땅을 파고 나올 세 쌍의 앞발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곰뽕이들은 강아지 몸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
한다

나비보다 더 오래 기다려온 매미의 꿈이 먼저 흙 속
에서 기어서 올라온다

등이 환하다

오랜만에 빈 고향집에 돌아왔다
빈터에 꽃을 심다가 허리를 폈다
깨벽쟁이 친구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 샘터에서 목욕하고 계신다
어머니와 친구는 오래전 흠이 되어
등목을 할 수 없다
나의 등과 친구 어머니 등에 손이 닿지 않는다
가만히 다시 내려다보니
내가 심은 꽃들이 등을 내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뼈만 남은 저 감나무 말벗이라도 되어야겠다

심우도

심우도(尋牛圖) 속으로 걸어간다 나의 흰 소는 보이지 않고 검은 소들이 있다

소들이 소나무 아래 모여 있다 멍에도 코뚜레도 없다 숲에서 뜯어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며 서로의 눈빛을 본다 서로의 등을 훤히 알아주는 소도 있고 죽비처럼 꼬리로 엉덩이를 치는 소도 있다 새로 발견한 풀밭을 알려주는 지 꺾속말을 속삭이는 소도 있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소도 있다

나도 소를 길렀다 나는 늘 길을 들이려고 했다 내가 기르는 소는 코뚜레를 하였고 멍에를 하고 쟁기질해야 했다 갱본에서 쉬는 동안에도 말뚝에 박혀 있어야 했다 나의 소는 소나무 그늘에서 쉬어보지 못했다

나는 흰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 생각만 하였다 소와 함께 놀아줄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내가 소를 업어 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소들이 다시 숲으로 들어간다 소는 걸어가면서도 텅 텅 텅 퐁을 잘 썬다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이 풀에게 밥을

준다 나도 소나무 그늘에 앉아 바다를 보다가 소들이 들어간 숲으로 따라 들어간다

숲에서 비명이 들린다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소나무가 없어져야 땅값이 오른다며 소나무를 죽이고 있다 그해 겨울의 숲처럼 숲은 온통 소나무 무덤이 된다

숲에 소나무가 없다 소들이 함께 모여서 쉴 곳이 없다 가시덤불 속에서 가시에 찢리며 소들이 서 있다

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렵게 새로 돌아나는 소나무 새싹에 콧김을 불어넣는다

나는 심우도(尋牛圖) 밖으로 나와 심우도(心牛圖)를 그린다

취과 등나무

취꽃이 환하게 피었다
등꽃은 지상을 밝히고
취꽃은 하늘을 밝힌다

등나무는 시계방향으로 돌며 오르고
취넝쿨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오른다
시계를 보니 동그렇게 돌고 있다

시곱바늘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가
(시곱바늘은 왜 같은 쪽으로만 도는 것일까)

0시에서 출발하면 오른쪽일까
3시에서 출발하면 아래쪽일까
6시에서 출발하면 왼쪽일까
9시에서 출발하면 위쪽일까

시곱바늘은 그냥 동그렇게 돌고
취는 취이 좋아하는 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등나무가 좋아하는 쪽으로 돈다
<

사람들은 취과 등나무를 보고
갈등(葛藤)이란 말을 만들었다
갈등이란 말을 만든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갈등이란 말을 모르는 취과 등나무는
지상과 하늘까지 환하게 밝히며 살아간다

시집

시집을 읽다가
화장실 다녀오니
시집이 활짝 피었다
시집이 종이 날개를 폈다
한 장 한 장
나무로 살아났다
시집 속
꽃들이 활짝 피었다
시집 속
새들이 날아올랐다
시집 속
별들이 피어올랐다

시집 속
시들의 숨결이
세상을 꽃 피우고
세상을 날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에 촛불을 켜고 있구나
<

시집은 읽다가
가끔은 멈추어야 한다
해찰해야만 한다
창밖을 보아야만 한다

시집을 홀로 펼쳐두면
책상이 피어나고
책상이 날아오르고
책상이 젖는다
방 안 가득
시의 꽃이 피어나고
시의 새가 날고
시의 별이 빛나고
시의 향기로 변진다

나는 홀로 시집으로 펼쳐진다

새집

비어 있는 새의 집
새집은 결코 크지 않다
저 작은 집에서
새끼를 낳아 길렀을 것이다
내 고향집도 저렇게 작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 작은 집에서
다섯 자식을 낳아 길렀다
요즘 새들은
비닐도 플라스틱도
석유 화합물도 사용해 집을 짓는다
하지만 인간들처럼
포클레인도
레미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제 몸으로 직접 집을 만든다
그리고 새들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린다
집이 작은 새들은 인간보다 자유롭다
새들의 집에는 지붕이 없다

지붕이 필요하면
자신이 스스로 지붕이 된다
새들은 더 큰 지붕이 있다
새들의 지붕은 하늘이다

깊은 밤 산책

깊은 밤 산책을 나간다
개 짖는 소리 멀어지고
지상의 불빛 모두 사라진다
계곡 물소리가 나를 감싼다

물소리를 깊고 가는 지팡이 소리에
하늘에는 젖은 별빛이 피어나고
월라봉에서 노루가 노루를 부른다

유반석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오고
달도 보이지 않는데 박수기정에서
항아가 내려와 샘물 마시는 소리 들린다

‘김광중영세불망비’ 앞에 앉아서 나는
도깨비들의 춤을 보며 물소리를 받아 적는다
휴대폰 메모장에 물소리와 별빛을 받아 적고
다시 하늘을 보니
그 많았던 별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나는 다시 별빛을 찾아서 계곡으로 돌아가는데

별들은 보이지 않고 동백꽃들만 길가에 내려앉아
깊고도 푸른 물소리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다

두부가 된다는 것은

콩이 두부가 된다는 것은
콩이 고기가 되는 것이다
콩이 두부가 된다는 것은
원이 네모가 되는 것이다
콩이 두부가 된다는 것은
딱딱함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다

어릴 적 내 고향에는 밤마다 두부를 만들어 파는 집이 있었다 따뜻한 두부를 먹기 위해서는 저녁밥을 일찍 먹고 서둘러서 가야만 했다 커다란 솥에 미리 갈아놓은 콩물을 은근히 끓이며 저어주어야만 했다 어둠이 늘어붙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저어주어야만 했다 보통 하루에 두 판 정도의 두부를 만들었고 명절에는 더 많이 만들어 팔곤 하였다 인기가 좋아서 늦게 가는 사람들은 두부는 사지 못하고 비지만 얻어올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얻어먹은 순두부와 두부의 맛을 잊을 수 없다 두부뿐만 아니라 비지의 맛도 잊을 수가 없다

두부를 만든다
이제는 맷돌로 갈지 않고 모터로 콩을 간다

물을 부어가며 콩을 갈아 콩물을 만든다
이왕에 콩물이 있으니 콩국수도 만들어 먹으며 두부를 만든다

두부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은근과 끈기다
은근한 불에 끈기 있게 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
인생이 늘어붙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저어주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콩물을 저어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지쳐서 방에 들어가 드러눕는다
어떤 사람은 곁에서 노래를 불러준다
어떤 사람은 국수를 끓이고 김치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콩이 콩물이 되고 콩물이 다시 엉겨 붙어 두부가 된다
딱딱한 것들은 부드러워지고
둥근 것들은 제 영혼을 갈아서 다시 네모로 부활한다
순두부로 만족하는 두부도 있지만
다시 물을 쪽 빼고 두부가 되고 싶은 콩들이 많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렇게 모두가 둥그렇게 태어나
서 네모로 간다
둥그런 하늘 아래서 둥그런 무덤을 만들고 떠난다
둥그런 무덤 속에는 언제나 두부처럼 네모난 관이 들
어 있다
(혹은 네모난 상자 안에 둥그런 향아리 속에서 잠든
다)

메별

별뿔 하나 없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음지식물로 자라야만 했던 친구야
성산 일출봉에서 햇빛 한 짐 가득
바지게 넘치도록 짙어지고 가서
너의 아침 앞마당에
환하게 부러놓고 싶은 오늘
나의 낡은 지계가 보이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깊은 그늘 짙어지고 가서
아득한 산속에 그냥 두고 왔었구나
그날 받쳐 두고 온 지계 작대기
너의 늦은 소식이 부러뜨리는구나
음지식물 같은 달이 되어 살다 보니
달빛과 햇빛은 서로 만날 수 없구나
언젠가 아픈 고향에서 다시 만나자
너는 또 이어도의 햇빛인지 달빛인지
한 동이 이고 태평양을 건너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먼 그대가 되어가는가
대추나무에 추억들만 아그데아그데,

어금니

치과 의자에 앉는다
의자가 침대로 변하면서 나를 눕힌다

입을 아, 벌린다
왼쪽 어금니는 어린 시절 어이없이 잃었다
신경치료는 잠시 뒤로 미루고
무서운 드릴이 악을 쓰며 흰 뼈를 갉아 먹는다
떨리는 두 팔로 나의 가슴을 꼬옥 껴안고
발가락 끝까지 긴장하고 있는 나를 안정시킨다
눈을 꼬옥 감고 안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
내 가슴속 징검다리처럼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이어도를 생각한다

섬들이 어금니처럼 있다
섬들이 어금니처럼 바다에
뿌리를 박고 서 있다
이어도가 사랑니처럼 숨어 있다
사랑니 곁에 임플란트처럼 과학기지 탑이 있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서귀포의 꿈이다
날아가던 꿈들이 가끔
서귀포 칠십 리에 돌아와
이어도 길에서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곤 한다
태풍의 길목에서 바람도 껴안고
파도까지 껴안으며 더 큰 꿈을 키우고 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금니는 아래쪽에 산다
윗동네 사는 어금니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랫동네 턱이 부지런히 씹어서 먹여 살린다
고구마처럼 생긴 제주도가 입으로 보인다

이어도가 무너지면 파랑도가 무너지고
파랑도가 무너지면 마라도가 무너지고
마라도가 무너지면 가파도가 무너지고
가파도가 무너지면 모슬포가 무너지고
모슬포가 무너지면 서귀포가 무너지고
서귀포가 무너지면 제주도가 무너진다

벌렸던 입을 다시 다문다

밤하늘의 어둠이 어금니에 딱 깨물린다
입 안 가득, 밤하늘 별빛이 눈부시게 번진다
침대는 다시 의자가 되어 나를 일으켜 세운다

용

서귀포에는 용이 승천하는 길이 있다
서귀포에는 용이 내려오는 길도 있다
천지연폭포도 있고 천제연폭포도 있다
정방폭포도 있고 영포폭포도 있다
태평양에서 가끔 승천하는 용오름도 있다
서귀포에서 승천하는 용들은 날개가 있다
나는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용을 보았다
나는 용천을 타고 내려오는 용도 보았다
용천수는 샘물이 아니라 강물이다
땅속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이다
화순 하강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돌 속에서 오래도록 잠자던 용이 나온다
하늘로 가는 용이 있고 바다로 가는 용이 있다
서귀포의 용 한 마리 무지개로 일어서고 있다
용의 등을 타고 있는 산방산
수평선이 용머리해안처럼 둥그렇게 굽어 있다
서귀포는 아무리 보아도 지구처럼 둥그렇다

숨비소리만으로 보이던 어머니,
지구를 짊어지고 숨비기꽃 사이로 걸어오신다

서귀포 칠십리 시 공원

이어도에서 나와 함께 살던 구름이 시를 읽는다
문섬과 새섬을 지나온 구름이 나와 함께 읽는다
곶에서 천지연폭포가 물소리로 장단을 맞춘다

정지용은 백록담을 오르고, 김춘수는 이중섭과 말하고,
강통원은 수평선을 보고, 양중해는 마라도를 생각하고, 정
한모는 해양시초를 쓰고, 정완영은 바람을 헤아리고, 박남
수는 정방폭포를 꿈꾸고, 박재삼은 정방폭포 앞에서 짓고,
이생진은 성산포를 그리워하고, 이동주는 서귀포와 속삭이
고, 박목월은 밤구름으로 흐르고, 구상은 한라산에 앉고,
한기팔은 서귀포를 살고 있다 조미미는 서귀포를 아시나요
물으며 노래하고, 김서울은 내 고향 서귀포를 노래하고, 이
미자는 서귀포 바닷가에서 노래한다

이어도는 우리를 이어주는 섬, 이어도는 꿈으로 가는
징검다리, 여기에도 징검돌 하나 놓으라 한다
이어도에서 나와 함께 살았던 바람이 속삭인다
무태장어와 함께 따라온 물소리도 나에게 속삭인다
이어도에서 함께 살아온 구름이 나에게 보여준다

<

<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징검다리 놓으라 한다
마라도 앞바다,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 앞에
이어도 문학관과 이어도 창작촌을 만들라 하더니,
이어도 시비 하나 더 만들라고 한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모양으로 세우라고 한다

정의현에서 서귀포까지 칠십 리, 서귀포에서 대정현까지
칠십 리, 모슬포 칠십 리 노래도 불러보라고 한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가 된 전생의 부모님
그 절절한 못살포 이야기도 전하라고 한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오후 세 시의 바람 시를 쓰고
화장하고 출근하는 오후 네 시의 분꽃 시를 쓰고
천지연폭포 거슬러 올라가는 무태장어 시를 쓰는 서귀포

서귀포 어디라도 문만 열면 태평양인데
이어도 큰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태평양 가슴 품은 서귀포 사람들 노래하라고 한다

탐라국 입춘굿

칼바람 추위에 납작 엎드려 있던 쪽파들이
팔을 쪽쪽 뻗어 기지개를 켜다
눈송이인지 수선화 꽃잎인지 매화 꽃잎인지
새하얀 것들이
입춘 하늘을 온통 흔들어대고 있다
탐라국(耽羅國) 신들이 까마귀 꺾새들 앞세우고
한라산 구상나무 숲으로 내려온다
동자복 미륵과 서자복 미륵이
용두암에서 헛기침을 크게 한다

신구간(新舊間)에 하늘 다녀온 탐라국 신들이
관덕정(觀德亭) 앞으로 내려온다
일만 팔천 신들이 시내까지 내려와 둘러보고 있다
제주목관아지(濟州牧官衙址)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신들과 사람들이 깃발 앞세우고 관덕정으로 몰려오
고 있다

자청비가 앞에서 낭쇄를 끌고 온다
새로운 씨앗 뿌리려고 새 씨앗 가지고 자청비가 온다
바람신(風神) 영등할망도 함께 온다

어지러운 세상 한 번 뒤엎으려고 서둘러서 온다
바다도 뒤집고 하늘도 뒤집어 세상 한 번 바꾸려고
온다
천지왕 허락받아 작심하고 불어온다
바다에도 뿌리고 땅에도 뿌리고 하늘에도 뿌리고
온 세상에 알토란같은 씨를 뿌리려고 풍요신이 온다
천지왕의 두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이 함께 온다
해도 둘 달도 둘 혼돈의 세상
거대한 활로 하나씩 쏘아 없애고 송피가루 뿌려
천지 질서를 바로잡았던 두 신이
큰 활 둘러메고 보무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온다
자청비를 따라 문 도령도 오고 정이 없는 정수남이도
온다
풍물패와 난장패와 걸궁패와 함께
세경신 세 명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탐라국을 손수 만든 설문대할망이 온다
옥황상제의 호기심 많은 셋째 딸이 온다
자식들 모두 불러 모아 오백장군들과 함께 온다
깃발에 쓰인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선명
하다

흔들릴 때마다 부자천하지대본(富者天下之大本)으로
떨럭인다

흔들릴 때마다 권력자천하지대본(權力者天下之大本)
처럼 떨럭인다

북치고 팽과리 치고 나팔까지 불어대며 춤추며 몰려
온다

신은 사람 같고 사람은 신 같이 파도치며 몰려온다
등불처럼 몰려온다 등댓불처럼 몰려온다
환하게 불 밝히며 불빛처럼 몰려온다

신명 나는 굿판에서 낭췌 한 마리

백비 속으로 걸어서 들어간다

남원읍 의귀리 송령이골 지나 백비 속으로 들어간다

그 어둠 속에서 연못을 파기 시작한다

연꽃을 피우기 위해 씨를 뽑아 씨를 깎아

씨의 송곳으로 연못을 파기 시작한다

씨의 갈로 비문을 새기듯

깊은 어둠 속에 연못을 파기 시작한다

관덕정(觀德亭) 앞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껏 지켜보던
이덕구

신들을 따라 제주목관아지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들을 따라 탐라국 왕궁으로 입궐하지 않는다
주머니에 꽂혀 있던 빛나는 숟가락 던져 버리고
『한라산』시집 한 권 펼쳐 들고 강정으로 달려간다

온통 하늘을 뒤흔들던 꽃잎들

백록담의 백록이 뛰어오르고 오름마다 꽃들이 피어
난다

달문moon

달은 문이다 문은 열리고 달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다
달은 달(達)이고 문은 문(文)이다

가슴을 열고 반월문을 바꾸니 달문 열리는 소리 들린다
다 가슴에 문은 사람들 숨소리 들린다

달이 자꾸만 문을 기웃거린다 나는 아직 안토니오 가
우디를 모른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모른다 달
빛으로 백 년의 꿈을 심는다

동쪽에는 평화공원이 있고 서쪽에는 평화학교가 있
다 생명학교와 함께 있다 그 평생학교에서 가파도와 마
라도가 보인다 가끔은 저 멀리 이어도와 서천꽃밭이 보
인다

평생 베풀을 만드는 갈대와 역새가 있다 평생 곡비
노릇을 하는 새들이 있다 백 년을 날려 보내고 백 년을
울어야 비로소 하늘문에 닿을 수 있을까

수의 한 별 얻어 입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낮에는 꽃들이 촛불을 켜고 밤에는 별들이 촛불을 켜다
달은 밤새 메밀밭 백비에 비명을 썼다가 지운다 파도는
밤낮으로 절벽에 비명을 썼다가 지운다 그렇게 백 년을
써야만 주춧돌 하나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폭낭과 워싱턴야자수가 나란히 서 있다 야자수 쪽에
서 해가 떠오른다 키 큰 야자수 그림자가 폭낭 가슴을
관통한다 폭낭 쪽으로 해가 기울어진다 넓은 폭낭 그림
자가 흘쭍한 야자수를 안아준다

백 년의 꿈이 낳은 폭낭 가지에 달문이 열린다 초승
달 살이 환하게 오르고 있다

발자국 밥그릇

눈이 온다 하늘이 온다
하늘의 식구였던 눈이 온다
하늘의 식구였던 하늘이 온다
눈이 쌓인다
하늘이 내려 쌓인다
큰일이다 큰일났다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
오려거든
더 빨리 펑펑 쏟아 부어라
우리들이 벗어놓은
발자국 가득 쌓여 넘쳐버려라
거꾸로 벗어놓은 발자국이
차라리 하늘이 되어버려라
큰넓궤에서부터 따라오는 발자국이
자꾸만 우리들의 목숨을 따라오고 있다
왕오름을 지나고
이스령오름을 지나고
어스령오름을 지나고
산짐승도 내려가 텅 빈 볼레오름에 다 오도록
우리들의 발자국은 하늘이 되지 못하는구나

고봉밥이 되지 못하는구나
발자국 밥그릇에 하늘을 다 담지 못하는구나
아, 존자암의 염불소리도
부처님께 올리는 삼시 세 때 공양도
우리들의 발자국 그릇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는구나
하늘의 눈꽃만 지상에 피어나
참나무들의 붉은 겨우살이 열매 눈빛이 더욱 붉어지
더니
털 채워진 하늘이 결국 붉게 엮어지고 마는구나

다랑쉬

다랑쉬에는 다랑쉬마을이 들어 있다
오름은 움푹해진 백록담도 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달과 함께 살았다
집들이 모두 불타고 굴속으로 들어갈 때도
달과 함께 가재쑥부쟁이와 시호꽃을 피웠다

사람들이 다랑쉬굴 안에서 연기가 된 뒤에도
달은 잊지 않고 찾아와 섬잔대와 송장꽃을 피웠다

무쇠술과 향아리와 낫수저와 신발만 남기고
열 한 명이 들려 나와 바다로 떠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어둠 속에는 아홉 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벗겨진 신발 찾으러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잠겨버린 어둠은 열리지 않는다

달이 찾아와 소리쳐 불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곁에 있는 용눈이오름 아끈다랑쉬오름 높은오름

뚫오름 둔지오름이 힘을 합쳐도 문을 열 수가 없다

남아 있는 늙은 팽나무가 그저 바라볼 뿐
무너진 돌담도 집터도 우물터도 안으로 눈물 흘릴 뿐

달을 따라서 달의 고향으로 온 나도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다볼 뿐

무명천 할머니

싸아아, 쏟아지는 정방폭포
철커덕, 들려오는 베틀소리

폭포에서 들려오는 베틀소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명천이 훑날리고 있다
아, 무명천 할머니 베를 짜고 계시나 보다
자신이 쓸 무명천이 아니라
폭포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입힐 수의를 짜고 계시나 보다
하얀 두건과 턱받이 같은 목화꽃을 토하며
폭포는 바다로 가는구나

한림읍 월령리 선인장 마을
무명천 할머니 길이 바느질되어 있다
빈집 이마에 등지를 튼 새 한 마리
할머니처럼 아래쪽 턱이 없어
말도, 울음도, 노래도, 하지 못한다

바닷가 선인장 마을 검은 돌, 울담 아래
조용히 울음을 말리던 할머니 보이지 않고
방 안 가득 걸려 있는 무명천에

소화불량과 관절염과 심장병의 진통제처럼
못다 한 음절들이 한 땀 한 땀 기어가고 있다

온몸 바느질 자국이 선명한 손바닥선인장들
파도소리는 그날의 기억을 잠시라도 잊게 했을까
뿔을 뜯으며 우물거리던 해변의 말들을
바다로 날아간 새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자물쇠로 걸어 잠가도 자꾸만 쏟아지는
그 깊고 고독한 동굴 속 어둠을 어떻게 지냈을까

비로소 득음한 무명천 할머니
지칠 줄 모르고 노래하며 베를 짜는구나
큰 소리로 노래하며 베를 짜고 있구나
무명천 턱받이도 풀려서 새처럼 날아가는구나

수의 한 벌 얻어 입지 못하고 떠난 님들이
뒤늦게 수의를 입고 하늘로 날아오르는구나
바다는 운슬이 빛나는 목화밭으로 풍년이고
바다로 떠내려간 몸들이 수의를 입고 올라가
운슬처럼 밤하늘 가득 반짝거리고 있구나

동백동산

관덕정 앞으로 모였던 3만 송이 봄꽃들
꽃샘추위에 뚝, 떨어진 동백꽃이 되었네
평화공원에 다시 모여 봄의 노래 부르네

솥을 굽던 사람들 붉은 솥불로 피어나고
하늘 꽃들이 지상의 꽃으로 다시 태어나
절정의 붉은 마음들 동백동산을 이루었네

도틀굴에 숨어든 선흘리 불칸낭 그림자도
목시물굴에 숨어든 북촌리 폭낭 그림자도
도틀물, 목시물 먹고 동백동산 식구 되었네

돌담 위에서도 쓰러진 나무뿌리 위에서도
애기동백과 후박나무와 팽나무를 낳았네
종가시나무를 낳고 참가시나무를 낳았네

땅에서 목숨으로 피어난 동백꽃 화엄이네
상처 많은 곳자왈맹아림 해인을 완성하네

목마름의 목을 축여주던 동백동산 먼물깎에는

백록담과 백두산 천지의 영혼이 깃들어 있네
순채 사이로 물방개가 노닐고
제주도룡농과 물장군과 두점박이사슴벌레가
꿈처럼 꿈속처럼 먼물깎에서 꿈을 꾸네

동백동산은 동백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네
세상에는 떨어져서 더욱 아름다운 꽃이 있고
죽어서 더욱 아름다운 길을 보여 주기도 한다네

성읍민속마을 느티나무

서귀포 성읍민속마을에는
천 년을 살아온 느티나무가 있다
육백 년을 살아온 팽나무 몇 그루
자식처럼 거느리고 다정하게 산다

천 살 먹은 나무 한 그루 아직도 잘 산다

맨 처음 태어난 밑동은 천 년을 살았다
그다음 태어난 가지는 999년을 살았다
그다음 태어난 가지는 998년을 살았다
작년에 태어난 가지는 2년도 살지 못했고
올봄에 태어난 가지는 돌도 지나지 않았다

천 년 된 나무는 한 늙은이가 아니다
천 살 드신 어르신부터
이제 막 하늘을 기어 다니는 아기까지
오손도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고향 마을이다

천 세대의 나무가 아직도 한 동네에 살고 있다

천 살 먹은 나무 한 동네가 다 함께 잘 살아간다

성읍 민속마을 나무 아래서 나무를 본다 나무 아래서
나무(鑼舞)를 보고 나무(南無)를 한다 나와 무(無)가 함
께 보인다 나보다 없음이 더 잘 보인다 육백 년 된 팽나
무는 처음부터 육백 살이 아니었다 천 년 된 느티나무
는 처음부터 천 살이 아니었다

가시리에서 대평리를 노래하다

서귀포의 봄은 어디로 오는 것일까
봄이 가장 먼저 오신다고 하였는데
어디로 마중을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성산 일출봉의 햇살로 오시는 것일까
가파도의 청보리밭으로 오시는 것일까
녹산로의 유채꽃밭길로 오시는 것일까
아, 마중을 나가면 가신다 가시리에서
가시리 가시리잇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위 증즐가 대평리성대(大坪里聖代)로다

서귀포의 여름은 어디로 오가는 것일까
천지연폭포의 무태장어로 오가는 것일까
정방폭포의 수평선 물빛으로 오가는 것일까
수국으로 왔다가 해바라기 씨만 남기고,
태풍으로 왔다가 산 그림자만 남기고
날리는 엷디 살라 호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위 증즐가 대평리성대(大坪里聖代)로다

서귀포의 가을은 어디에서 익어가는 것일까
감귤밭, 굴빛 향으로 익어가는 것일까

한라산 영실코스, 단풍 빛깔로 익어가는 것일까
마을까지 내려오는 억새꽃으로 익어가는 것일까
잡수와 두어리마누는 선히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리성대(大坪里聖代)로다

서귀포의 겨울은 어디로 깊어서 떠나가는 것일까
백록담에 올라가 은하수로 건너가는 것일까
수평선 너머 이어도로 멀리 떠나가는 것일까
아, 저녁 노을빛 서천꽃밭을 둘러보는 것일까
설은 님 보내옵노니 가시논 듯 도셔 오쇼셔
위 증즐가 대평리성대(大坪里聖代)로다

* 고려가요 가시리를 변용함

동광 양잠단지

서귀포 동광 양잠단지에 안개가 꿈틀거린다
무악에서 사거리로 안개비가 기어온다
병악에서 사거리로 눈개비가 기어온다
작은병악에서 사거리로 이슬비가 온다
죽은대비악에서 거리로 가랑비가 온다

동광 양잠단지 사거리 아스팔트 위로
검은 개미누에들이 기어 나온다
뽕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누에들이,
뽕잎 갇아 먹는 소리가 자란다
실크로드 낳았던 뽕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뽕잎 갇아 먹는 소리가 굶어진다
굶어진 빗소리, 누에 고개를 들고 잠든다
잠이 늘어날수록 비는 더 굶어진다
어머니는 잠실(蠶室)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나는 모자란 뽕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간다

누에가 투명해진 몸으로 숲에 올라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겨우 오디가 된다

<
양잠단지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
물레질소리가 들린다
베 짜는 소리도 들린다
누에가 평생 지은 집 한 채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다시 풀린다
실을 뽑는 동안 번데기는 팽형(烹刑)으로
죽고, 너무 어지러워서 한 번 더 죽는다

겨우 살아남은 번데기들은
누에나방이 되어서도 하늘을 날 수 없다
입으로 집을 짓느라 입이 닳아버린 누에나방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만 낳고 죽는다
평생 좋은 집 한 채 짓느라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 수 없다

꿈같은 비가 그치고
한라산 아래 첫 마을로 빠져나오며 뒤돌아보니
동광 양잠단지 방사형 사거리에
빛나는 누에고치는 보이지 않고,

거대한 거미집을 짓고 있었다
날개도 없이 하늘에 사는 거미가 날고 있었다

김광중영세불망비

나의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불가능을 넘어선 사람, 김광중
선생님을 만나려고 길을 떠난다
감귤꽃과 레몬꽃 향기를 따라서
큰길을 건넌다 퍼물을 들여다보고
퍼물논을 본다 연꽃을 보고 개끄리민소로 간다
개끄리민교를 건너면 월라봉이 나온다
개끄리민소에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 안덕계곡을 거슬러 오른다
도깨비빌레에서 보(도)막은소까지
수로를 따라 걷는다 김광중 길을 걷는다
테크길을 걸으며 정 소리와 망치 소리를 듣는다
김광중 선생님의 땀과 눈물과 웃음소리가 들린다

보막은소 위쪽에 있는 장군석과 올랭이소(오리소)
고래소와 임금내를 보려면
개끄리민교를 건너 월라봉 쪽 길에서 보아야만 한다
나는 장군석은 가끔만 보고
김광중길에서 도깨비들을 자주 만난다
<

나는 오늘도 김광중영세불망비 앞에서
김광중 선생님과 같이 도깨비들과 함께 춤을 춘다
안덕계곡의 물소리가 도깨비들을 만나 덩실덩실 춤
을 춘다
나와 김광중 선생님과 도깨비들이 한 몸으로 춤을 춘다
월라봉도 덩달아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다
월라봉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보름달도 덩실덩실 춤
을 춘다

오늘은 더 멀리 걸어가고만 싶다
오늘은 더 높이 날아가고만 싶다
도깨비들과 춤을 추다 보니 나도 모르게 도깨비가 된다
다리를 건너 월라봉으로 간다
월라봉 산책길을 걸어간다
유반석을 지나 동굴진지로 간다
유반석 아래서 푸른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앉아보기도 한다
안덕계곡 쪽으로 다시 내려와 장군석을 본다
장군석 아래로 휘돌아가는 물길이 아름답다
<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유반석과 무반석을 생각한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 속으로 빠져든다
꿈속에서 나는 오늘 김광중 선생님 대신에
김남주 시인과 고정희 시인을 만난다
김남주 시인께서는 나에게 ‘남과 북’을 읽어주신다
고정희 시인께서는 나에게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읽어주신다
꿈 밖으로 나와 보니 김남주 시인과 고정희 시인은
보이지 않고
오래전에 헤어졌던 김주남 친구와 고희정 친구가 나
를 보고 있다

서귀포 징검다리

하나

파랑도에서 나는 하늘을 본다
파랑도에서 나는 서귀포를 본다
파랑도가 서귀포 문을 열어준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빛난다
물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 서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광 패널들
꿈처럼 날개 활짝 편 헬기 착륙장
등대 기둥에 이어도 이름표 달고서
이어도에서 출발한 나를 맞이한다

둘

태풍이 자주 다니는 길을 따라서 오는데
오늘은 주름치마 입은 파도가 안내한다
마라도 등대가 보인다 장군바위가 맞는다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 앞에서 물질을 한다
전생의 어머니 숨비소리도 들린다
포작이었다는 할아버지 목소리도 들린다
통소를 붙어서 뱀들을 몰아냈다는 마라도
아버지는 오늘도 빈 통소를 붙고 계신다

늙은 해녀들은 이제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툫짜장에 넣을 뜻을, 할망 바당에서 뜯고 있다

셋

마라도 살레덕선착장에서 배를 타도 되지만
나는 이어도에 살던 진인답게 바람으로 간다
서핑보트를 타듯 파도를 타고 가파도로 간다
가파도 주변에 젊은 해녀들이 소리를 잡는다
가파도 짬뽕에 들어갈 뽕소라, 망사리 가득하다
가오리 꼬리를 잡고 가파도 등에 오른다
가파도는 깊을수록 젊어져서 힘이 참 좋다
가파도는 청보리밭에서 파도소리 들린다
가파도 올레길은 바람도 자전거를 타고 돈다
가파도 올레길에서 보는 송악산 산방산 한라산
황홀함에 이끌려 모슬포 운진항으로 가지 않고
송악산으로 간다 산방산으로 간다 한라산으로,

넷

절율이, 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산
늘 물결이 운다는 송악산 주위의 절벽들

절벽에서도 자세히 보면 길이 보인다
낭떠러지에도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 물결이 사납다
저 바다 밑 물결 속에는 이어도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 이곳에서 탑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어도에 살고 있다
나는 이어도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들었다
모슬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보목 자리보다 모슬포 자리가 역센 이유를
방어 축제 준비하다 이어도로 떠난 사람들
지독한 빗쟁이들도 순해진다는 이 전망대
가파도 되고 마라도 되는 우리들의 빛
전복이 많은 바당, 소라가 많은 바당을 지나서
해녀들의 불턱에서 나도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

다섯

산방산이 백록담처럼 고개를 든다
저 산 안의 방에서 살아도 좋겠다
산방산으로 간다 상모리에서
사계리 해안으로, 봄바람 되어 간다

죽술에 빠진 설문대할망 뼈를 보고
이곳까지 와서 매일 삼천 배를 올리는
오백장군 막내 형제, 형제섬을 보면서
사람발자국 화석에 나의 발을 맞춘다
소와 사슴 발자국에 나의 발을 대본다
매머드의 발자국에 나의 발을 넣어본다
나는 먼 옛날에 무엇으로 살았을까
나는 지금 어느 계절의 모래밭에서
사랑하는 그대를 찾고 있는 것일까

여섯

이어도로 가고 있는 용이 한 마리 있다
하늘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려는 용
고종달이 잘라버린 날개 때문에
바닷속 고속도로를 달려갈 용이 있다
이어도에 사는, 서복이 그리워하는,
산방산을 업고 이어도로 가려는 용
산방굴사에 앉아계신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가 더 좋다며 붙들고 있다
이어도로 가려는 용과, 머물려는 부처님은

언제쯤 마음을 합하여, 이어도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용머리해안을 시나브로 둘러보고
산방굴사의 부처님을 먼저 찾아간다

일곱

산방산에 구름이 집을 짓는다
산 안에 방이 있는 산
산과 산 사이에 방이 있는 산
나는 산 안에, 방이 있는 산을 찾았다
산 안에 있는 방에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산방산에는 빈방이 없다
산방굴은 이미 부처님께서 차지하셨고
서복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옥탑방에는 이제 올라갈 수 없다
산방산 옥탑방에서는 이어도가 보인다
한라산 옥탑방에서도 이어도가 보인다
아름다운 세상이 훤히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산방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산방굴사에서 겨우
산방덕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내려온다

여덟

화순금모래 해변에는 금은 없고 모래만 있다
천만다행이다 모래는 없고 금만 있었으면 어떨까
저 모래 속에는 그대의 발자국도 있고 숨도 있다
이어도로 가는 길도 있고 바다의 숨소리도 있다
용천수가 흘러넘치는 화순에는 담수욕장이 좋다
예부터 물이 좋으면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한동안 쉬어 가기로 한다
월라봉 위로 날마다 떠 오르는 달빛도 참 좋다
안덕계곡에서 흘러내리는 푸른 물소리도 참 좋다
아름다운 이곳에 이어도공화국 베이스캠프를 친다

서복과지

바람의 섬 이어도에서 서귀포로 간다 바람의 고향 이어도에서 서귀포로 간다 바람을 따라서 서복 선생님의 길을 간다 이어도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듯이 바람의 길 또한 보이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 바람의 길을 따라서 파도의 길을 따라서 서복과지(徐福過之), 그 길을 따라서 이어도는 간다 저 멀리 파랑도가 보인다 보일 듯 말 듯 언뜻 보인다 섬의 머리가 잠시 보이다가 다시 보이지 않았다가 언뜻언뜻 가끔 보인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서귀포가 구름 속에서 맞이한다

이어도는 하늘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중에도 있다 천국에도 있고 연옥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다 이어도 사람들은 서복 선생님과 서귀포 이야기를 자주 한다 서귀포에서 가져온 불로초 씨앗으로 서천꽃밭을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서복 선생님의 꿈 서복과지(徐市過之), 그 아름다운 전설의 길을 따라서 걸어본다

마라도 가파도 송악산 산방산 월라봉..., 서건도에서 서귀포항 가는 길, 사람들은 이어도길 이라고 부른다

내가 가지 않는 서귀포의 길은 없다 그곳에서 나는 범섬에서 법환포구까지, 법환포구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경기장에서 고근산까지, 고근산에서 서귀포 치유의 숲까지, 치유의 숲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르기도 한다 서귀포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나는 역시 내가 자주 다니는 산책길이 참 좋다 마라도에서 가파도까지, 가파도에서 송악산까지, 송악산에서 산방산까지, 산방산에서 월라봉까지, 산방산과 월라봉 사이에 있는 이어도공화국 베이스캠프, 이어도서천꽃에 서의 명상과 휴식이 나는 참으로 황홀하게 좋다

생수귀

새섬에서 천지연폭포로 간다
새의 뿌리들은 무태장어의 등을 쓰다듬고
무태장어처럼 부드럽게 춤추는 새 숲에서 새들은 날
아오른다

새연교를 건너 무태장어를 따라 올라간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물이 바다를 만난다

돌, 소리와 물, 소리가 들린다
인류학자들은 먼 옛날의 시간을 캐고
고고학자들은 깊은 상상력을 캐낸다
돌 깨뜨리는 소리가 들린다
생수가 솟아나는 소리도 들린다
동물 가죽옷을 입은 구석기인들도 보인다

돌날과 돌날뭉돌, 줌돌날과 줌돌날뭉돌,
굽개와 톱니날 석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보인다
빌레못동굴에서 친구들이 찾아왔는지 갈색곰뼈가 보
인다
대륙사슴뼈와 큰 노루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
인다

<
숨반내를 거슬러 올라가는 무태장어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또한 어느 먼 별에서 왔을까
시인들보다 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고고학자들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한 몸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육지에서 걸어왔다고 하는데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살던 동물들도
서귀포까지 걸어서 왔다는데
상상력이 부족한 나는

서귀포층, 패류화석을 보려고 다시 돌아서 간다

해녀

태왁을 들고 바다로 간다

저승 돈 벌어서 이승 자식 먹여 살리는 숨비소리
할망바다에서 미역만 따던 잠녀들이
전복을 채취하던 포작인들의 일까지 도맡아서 한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물에 들어가는 잠녀들
저승길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바다에 살던 남자들은 죽거나 도망을 가고
출륙금지령은 200년이 넘었다는 세월
살아 있는 목숨은 살아야만 했다던 세월
바다 밭이 유일한 목숨 줄이었다던 세월
전복은 진상하기에 바빴고 미역이 겨우 살렸다

삼월 보름 물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했지
미역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지
드디어 미역해경 하는 날,
그날은 선비 부인도 책함 지고 얼쩡거린다고 했지

그날은 모두가 미역으로 바쁜 날이었지

어머니는 미역을 따고
아버지는 미역을 저서 운반하고
우리들은 보릿짚을 깔고 나란히 펴서 말렸지

미역 줄기는 아까워서 함부로 먹지 못했지
우리들은 씨앗 주머니, 미역귀를 먹었지
두껍고 미끈거리는 액체가 많아 말릴 수 없었지
잘라서 버린 미역귀를 구워서 먹었지
추억의 맛은 씹을수록 맛이 참 좋았지

마을마다 미역이 많은, 학교바다도 있었고, 이장바다
도 있었고, 기성회바다도 있었지, 물론 좋은 곳에 할머
니바다도 있었지

서귀포 미역은 산모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지
바다의 전복이나 소라도 미역을 먹고 자라지
돌고래도 새끼를 낳으려면 미역을 실컷 먹었지
새끼에게 영양 많은 젖을 먹이기 위해서였지

아, 태왁이 젖은 몸을 들고 불턱으로 간다

섬의 뿌리

서귀포 문섬의 뿌리를 찾아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파래, 미역, 감태, 모자반, 우뚝가사리가 보인다
고동, 소라, 전복이 보이고 해파리와 멸치 떼가 보인다

잠수함을 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자리돔, 줄도화돔, 범돔, 놀래기, 쥐치, 아홉동가리,
돌돔
수많은 물고기 떼와 함께 스쿠버 다이버가 놀고 있다

해저 삼십 미터,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라고 한다
우와, 입이 절로 벌어진다 해송, 해면, 부채산호,
분홍맨드라미산호, 맵시산호, 수지맨드라미산호, 돌
산호
섬의 뿌리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함께 살고 있구나

해저 사십 미터, 바닥 깊은 곳에 집이 된 난파선이 있다
물에 빠진 배 하나가 저렇게 많은 생명들의 집이 되
었구나
나는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바닥에서 난파선을 본다
<

작은 문섬 하나의 뿌리에도 숨결이 저렇게 많은데
한라산 뿌리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살고 있을까

나는 아주 잠시
당신의 마음속을 보았을 뿐인데
나의 마음속에는 이제 달고기가 살고
아홉동가리가 살고 자리돔이 살고
민승달팽이가 살고 망상맵시산호가 살고
해송이 살고 분홍바다맨드라미산호가 살고
나비고기가 살고 놀래미가 살고,

내 마음의 난파선이 당신의 집을 짓는다

덜컹

〈몸〉이라는 글씨를 써 놓고 들여다본다
두 개의 입 같기도 하고 창문 같기도 하다
좀 더 자세히 보니 두 장의 벽돌 같기도 하다
몸 안이 흰히 들여다보일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내 몸 안을 볼 수 없다
콘크리트 같은 내 몸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내 몸 안에서
암 덩어리라도 살림을 차린 것일까
이러다가 덜컹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아픈 몸으로 태어나
지금껏 잘도 버텨왔는데
이러다가 덜컹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덜컹 가게 된다면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덜컹 떠나야 한다면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껏 건강을 핑계로 몸만 따라다녔다
내 마음이 주인이 되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덜컹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쯤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날이 오면 좋겠다
벽돌 한 장 내려놓으니
몸이 마음이 된다
창문 한 번 열어보니
몸이 마음으로 열린다
〈몸〉 글자를 지우고 〈마음〉 글자를 덜컹 쓴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덜컹 보이기 시작한다

하루

하루는 24면의 신문이다
나는 자정이 되면 신문처럼
시간을 접어서 쌓아 놓는다
하루를 접어서 쌓아 놓는다
그리고 새로운 신문을 맞는다
가끔은
지난 신문 뒤적거려
먼지만 폴폴 날린다
나는 석간신문일까
너는 조간신문일까
나는 구독자일까
너는 발행인일까
내가 신문(新聞)보다
신문(新門)을 더 좋아하고
신문(新文)을 더 사랑하여
하루가 온통 문과 글로 보인다
하루는 24면의 신문이고
한 해는 365쪽의 책이다

산과 바다

산은 바다의 지붕 위에 떠 있고
바다는 산에서 내려온 물들의 집

수직은 수평 위에 설 수 있고
수평은 쓰러진 수직의 잔잔한 잠

산의 고향은 바다
바다의 고향은 산

하늘이 수직으로 떨어져
단애 아래를 수평으로 걷는다

산은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고
바다는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다

정방폭포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목숨들
바다에서 다시 날아오르지 못하는 날개들

바닥이 너무 깊이 젖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수평선

용수철 부처

내 곁에 용수철 부처님이 있다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있다
용으로 착각하고 사는 미꾸라지가 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하루 종일 일어날 수 없었다
미움이 쌓이면 일어서지 못한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저물녘에 겨우 일어나 월라봉에 간다
개끄리민교를 건너 어두운 월라봉을 오른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용수철이 튀어 오른다

월라봉 소나무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소나무재선충이 산을 무너뜨렸다
온 세상이 무덤이 되었다
소나무 시체들을 실어 가려고
온 산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발자국으로 뒤덮였다
<

속이 병들면 산도 무너진다
마음이 병들면 하늘도 무너진다

멀리 개 짖는 소리 울려 퍼진다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구름을 헤집는다
먹구름 속에서 별꽃이 피어난다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하룻강아지도 미꾸라지도
모두가 다 연꽃을 피우기 위한 부처의 모습이다
오늘 밤도 용수철 부처님이 연꽃을 피워 올리고 있다

달과 소나무

고래로 부활하기 위해 고래 밥이 되려고 했었다
바다가 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마라도 역새꽃이 빛나던 추석날 밤이었다

보름달은 다시 월라봉 위로 떠 올랐다

유반석 아래 넓은 풀밭에
소나무 두 그루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라도를 바라보았다
가끔 지나가는 고래들을 바라보았다
박수기정 그 높은 절벽을 기어 올라온 젖은 보름달

죽어서도 살고 싶어 소나무가 되고 싶었다

바람이 불면 슬며시 손을 잡아보고
천둥이 치면 땅속에서 와락 끌어안기도 하던
그렇게 평생 나란히 서서 잠들던 두 그루 소나무

한 그루는 태풍에 쓰러지고
또 한 그루는 소나무재선충으로 말라 죽어

이제는 또다시
바람만 무성하게 살고 있는 넓은 풀밭
소나무 그늘에서 쉬던 소도
풀밭에서 풀을 뜯던 소도 보이지 않는
달도 소나무도 보이지 않는 밤
하늘 가득 파도소리만 부서지며 기어오르고 있다

꿈

수렁에 빠진 나날이었다
숫자의 세상에서 숫자로 산 나날이었다
위험하고 이상한 배를 타고
돌아와 보니 고향이었다
초등학교 토끼장에서 어머니가 나오셨다
환자복을 입고 커다란 똥주머니를 차고
삐쩍 마른 어머니가 나오시다 자꾸만 넘어지셨다
섬에는 잘 다녀왔니야~?
아이고, 내 아들 잘 왔구나!
넘어지며 비틀거리며 겨우 다가온 어머니가
다시 넘어지며
와락, 나를 껴안았다

나는 뒤로 넘어져 일어서질 못하고
어머니는 똥주머니에 튕겨져 나가 뒤로 넘어졌다
어머니는 자꾸만 다시 일어나 나를 껴안으려 하셨다
하지만 그 똥주머니 때문에 안지 못하고
또다시 자꾸만 뒤로 자빠지셨다
어머니는 한참을 드러누워 생각하시다가
비장한 결심이라도 한 듯

생명 같은 똥주머니를 터트리고 나를 끌어안으셨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목숨이었던 똥을 뒤집어쓴 나는
꺼억 꺼억 소리 내어 펄펄 울기 시작했다
꿈 밖에서도 나는 뜨거운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뜨겁고 깊이 울면서 숫자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오고 있다
아무리 길어도 문장이 되지 못하는 숫자들
아무리 많아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숫자들
아무리 생각해도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숫자들
그 젖은 숫자들의 낙엽을 밟고 걸어 나와
평생의 꿈을 향해 젖은 몸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소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여행하고
만 명의 친구를 사귀어라*

하지만 나는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단 한 곳을 여행하고
단 한 사람만을 사귀고 싶다

나는 평생
단 한 권의 당신을 읽고
단 한 곳의 당신을 여행하고
단 한 사람, 당신만을 사랑하고 싶다

이것만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망이다

* 讀萬券書 行萬里路 交萬人友

그믐달

새벽부터 달이 운동하고 있다
당뇨병이 깊어지고 있는 것일까
근육 하나 없이 뼈만 남은 그믐달
아침저녁으로 동네를 몇 바퀴 돌던 어머니
이러다 봉사 되면 어쩔거나
자꾸만 눈을 비비시던 어머니
벌써 합병증이 깊어진 것일까
눈이 어두워 밤새 집을 찾아가지 못한 것일까
밤이 새도록 잠 못 이루고 나보다 먼저 나온 것일까
날은 추워지는데 집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운동해도
더 이상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 그믐달
아직은 따뜻한 나의 손을 아침 햇빛으로 내민다

잠든 영혼에 불을 댕기다

꿈 숲에 용이 한 마리 살고 있다
산에서 바다로 가는 용이 있다
아니다
다시 보니
바다에서 산으로 가고 있다
바다에서 하늘로 가고 있다
용암이 용으로 부활한 바위가 있다
용 바위가 꿈 숲을 지키고 있다
낮에는 꿈쩍도 않고 옆드려 자다가
어둠이 내리면
슬슬 깨어나
꿈 숲을 둘러보는 용이 있다
꿈 숲 밖에까지 나가
바다에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하늘에도 가보는 용이 한 마리 있다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
꼭 그 자리에
다시 옆드려 깊은 잠을 자는 용이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전날 밤에 어디에 다녀왔는지
잠꼬대를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잠이 들어도 다 들린다
용암의 뜨거운 심장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바다에서도 식지 않은 심장 하나
다시 산으로 가고 있다
다시 하늘로 가는 용이 한 마리 살아 있다

뼈와 인대

조개 한 마리
뼈 사이에서 조용히
부드러운 살을 내밀고 있다

위험을 감지한
조개 한 마리
부드러운 발을
뿔속으로 숨기고
딱 다물어 버린다

밖에서는 더 이상
조개의 문을 열 수 없다
양쪽에 붙어 있는
하얀 인대가
뼈보다 힘이 더 세다

세상은
뼈가 아니라
인대가 움직인다

딸꾹질

요즘 자동차들은
달리기 시작하면
철컹덕,
감옥의 문이 잠긴다
문에 기대어 쉬던
하느님이 놀라
비틀거리며
잠금 버튼을 누르신다
공기가 오염되어
숨쉬기 어렵다고
딸꾹질하며
하느님이 가둔다
나는 걷는다
감옥의 문이 싫어져서
천사들이 좋아져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거리에서는 아직도
나의 포착질 소리와
하느님의 딸꾹질 소리가 들린다

알

하늘에서 본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
바다에 공이 하나 떠 있다
손을 뻗친 손바닥 자국들이
비치볼에 가득 찍혀 있다

높은 하늘에서 본다
미국과 소련이 질러대던
럭비공 하나 떠 있다
축구공 하나 떠 있다
군홧발로 함부로 차던
족구공 하나 떠 있다

더 높은 하늘에서 본다
미국이 상대 선수를 바꾼다
미국과 중국이 야구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탁구를 한다
수없이 배트로 얻어맞은
상처투성이 야구공 하나 있다
찌그러진 탁구공 하나 떠 있다

<
하늘에서 다시 본다
알이 하나 있다
알이 움직이고 있다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

가장 소중한 꽃 한 송이 피어난다

관덕정

죽어서도 오백 년 천 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
살아서도 투표용지 같은
잎들만 떨구는 나무가 있다

관덕정 앞 광장에
분홍달맞이꽃이 피어난다
꽃들의 가슴속에
불씨가 숨어 있다

보도블록을 들썩이는
뿌리들이 있다
화살 같은 햇살을 받으며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지금도 관덕정에서는
이재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덕구의 피 냄새도 풍긴다
이승만 꼭두각시도 보인다
<

별들이 켜놓은 꽃불이 피어난다
꽃들이 켜놓은 혼불이 반짝인다
심장 같은 나뭇잎이 돌아난다

죽어서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
죽어서도 집이 되어주는 나무가 있다
살아서도 심장에 촛불이 꺼진 사람들
살아서도 허수아비 그림자들이 많다

폭낭과 야유나무

당산나무가 나를 업어 키웠다

제주도 폭낭들은 오늘도
허리가 휘어지도록
바람을 업어 키우고 있다

북촌리 폭낭은 그날을 잊을 수 없다
1949년 1월 17일
그날 보았던 일들이 지워지지 않는다

당산나무에 임신부를 매달고
대검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
총탄에 쓰러진 시체 더미 속에서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
피의 가슴을 빨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피가 솟아나는 순간
천둥소리가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그 미친(美觀) 바람은 바다까지 건너갔다

야유나무를 한 번 휘감고
풍니를 거쳐 풍넛으로 달아났다
제주도 폭낭처럼 베트남의
그 풍니 마을 야유나무도 똑똑히 보았다
총소리를 보았고 천둥소리의 뼈를 보았다
1968년 2월 12일 아침
야유나무는 야유나무 학살을 모두 다 보았다

탐라국 폭낭들이 보았고
참파왕국 야유나무가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당산나무들이 오늘도 똑똑히 보고 있다

당산나무는 어미가 되고 싶다
당산나무는 다만 어미가 되고 싶다
당산나무는 이제 다시 어미가 되고 싶다
웃는 아이들을 업어서
웃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어미가 되고 싶다

백비

오후 네 시의 평화공원
온몸이 부서져 내린 보름달 부스러기들이
가을 억새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다시 보름달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가을바람에 온몸을 내던지며
스스로를 반죽하는 저 빛나는 영혼들
아, 어머니가 밀어 만들어 주시던
칼국수 반죽처럼
크고 둥글고 납작하게 늘어나는 흰 영혼의 숨소리들

평화공원에 아직은 달이 뜨지 않는다
무지개도 검은 무지개만 떠 있다
거친오름 기슭에 너무 많은 관이 묻혀 있다
관들이 병풍으로 쌓여 있는 위패봉안실 뒤로
행방불명자 비석들이
궤 속에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건만
아직은 밤이 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어머니가 끓여주신 칼국수 함께 먹으려면

우리들의 밤은 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동굴 속 하얀 혼백의 관으로 누워 있는 저 백비에
저 많은 죽음이 통일의 첫걸음이었다고
저 많은 통곡이 평화의 씨앗이었다고
아직은 새길 수 없어
코스모스는 길 밖에서만 피어나고
어머니가 만드는 칼국수 반죽은 보름달이 되지 못한 채
검은 동굴 속에서 흰 관으로 묻혀 숙성되고 있다

불간냥

그때 불에 타버린 나무가 어찌
선홀리 후박나무뿐이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한 나무가
어찌, 북촌리 팽나무뿐이라

불이야아~ 불이야아~ 불이야아~
아무리 소리쳐보아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아무리 빌어보아도 아무도 살려 주지 않는다
아무리 호소해보아도 누구 하나 살려주지 않는다

붉은 태양이 무섭다 푸른 하늘도 무섭다
밤하늘의 별들도 너무 뜨겁다
달은 지금도 그때 입은 상처가 선명하다

온 세상을 쉬지 않고 돌고 있는 달을 보아라
불이야, 를 뜨겁게 외치는 둥근 저 영혼을 보아라

잊을 수 없다 온 동네가 불타오르던 그날을 평생 잊
을 수 없다 뜨거운 몸이 먼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병
든 사람이 문지방을 기어 나오다 불타오르고, 갓 낳은

아이를 끌어안고 쓰러진 젊은 엄마가 불타오르고, 대나무밭
에 숨어 숨죽이며 지켜보던 눈빛이 불타오르고, 우리 안의 돼
지가 불타오르고, 외양간의 소가 불타오르고, 닭들이 불타오
르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그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쏘아 죽이며 온 동네에 불을 질러
대던 사람들, 배고픈 개와 돼지들이 올레에 쓰러져 죽은 사람
들을 뜯어 먹고, 그런 개와 돼지들을 또다시 잡아먹는 사람들
까지 모두 보아버렸으니, 어찌 멀쩡한 맨정신으로 살 수 있었
겠느냐

그러나 아, 온 동네가 불타오르는 밤하늘의 별들
이제 겨우 눈빛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밤새 불이야, 를 외치며 쉬지 않는 달빛의 목소리에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하는 어둠 속 빛나는 눈빛들

밤이 깊을수록 더 깊은 어둠일수록, 더 밝은 별빛을 낳는다

한라산 어욱새

한라산 어욱은 새가 되지 못하여
봄부터 베를 짜기 시작한다
초가지붕에도 오르지 못하여
베옷 한 벌 장만하기 시작한다

천둥 번개 요란한 여름에도
베틀소리 멈추지 않는다
새 옷 한 벌 얻어 입지 못하고
만가(輓歌)도 없이 숨죽여 가신 님들

해 좋은 날, 어욱꽃 마을까지 내려온다
수의 한 벌 챙겨 들고
요령소리 앞세우고
잃어버린 마을까지 잊지 않고 찾아온다

무너진 돌담 하나 대답이 없어
빈 상엿소리에
빈 수의 한 벌 흩어져 날아가고
갈 곳 잃은 바람의 곡비
온몸이 휘청거린다

<
 뼈만 남은 한라산 역새
 흰 눈 내려 헛묘에 묻히고
 한라산 자락에는 해마다
 메김소리 가득한 오름 하나씩 늘어난다

섯알오름

섯알오름 연못에 연꽃이 없다
소나무들이 온몸으로 젖으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다
까치도 보이지 않고
까마귀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오작교가 보이지 않는다
두개골과 척추뼈 하나씩만 묻히고
나머지 뼈와 살과 영혼들이
오름 어딘가에 흩어져
칠석날에도 만나지 못한 채
자꾸만 달과 별들을 부르고 있다
곁에 있는 백조일손묘역(百祖一孫墓域)에도
안장되지 못한 영혼들
섯알오름을 둘러싸고 있다
등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저
소나무들의 뿌리를 힘껏 잡아당기고 있다
길을 가던 달이 별들을 데리고 조문을 온다
소나무가 그들을 맞이한다
소나무들이 자꾸만 발목을 내려다본다
새벽이 조문을 오고 아침이 조문을 오고

동알오름 쪽에서도
조문 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두 개의 연못이 해처럼 환해진다
섯알오름 연못에 오작교 같은 연꽃이 돌아나고 있다

새별오름

새별오름만큼 앞뒤가 다른 오름이 있을까
지난 정월 대보름 축제 때
새까맣게 태워졌던 기억을 다 잊고
환하게 맞아주는 저 억새꽃
눈 맞추면 마음속까지 다 보일 듯하다
같은 날 죽은 부부가 합장된 사연
돌이끼 꽃 가득 핀 산담, 햇살이 기웃거린다
어느 쪽이 앞이고 어느 쪽이 뒤일까
어느 쪽이 삶이고 어느 쪽이 죽음일까
불길이 닿지 않은 쪽에서
달의 앞쪽과 달의 뒤쪽을 함께 본다
바다에서 한라산 쪽으로 바람이 분다
최영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멀리 들린다
무장대를 한라산 쪽으로 몰아가는 토벌대의 발자국
소리도 들린다
죄 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의 밥그릇 소리도 들린다
밥그릇들이 어지럽게 얹어져 있다
정돈되지 못한 묘지들이 잃어버린 마을처럼 있다
햇살 가득한 공동묘지, 그러나
없어진 밥그릇은 어느 것 하나 햇살을 담을 수 없다

큰넓궤

평화로 가는 길에 붉은 상사화 무리 지어 피어난다
추석 다음 날 오후 큰넓궤 찾아간다
큰넓궤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해 추석을 어떻게 지냈을까
아, 큰넓궤는 끝까지 눈을 감지 못한 어머니 눈동자처럼
나를 길에서 쏘아버린 어머니의 자궁처럼 나를 맞이한다
태양빛이 뜨거워 썼던 양산을 접고 입구를 들여다본다
자궁 속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
서늘한 바람이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싸늘한 정신이 가슴 속을 후벼판다
이곳이 발각되어 볼레오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그들을 두 달 동안 지켜주었던 입구의 종나무를 본다
그 종나무와 어울려 살고 있는 단풍나무를 본다
홍단풍은 봄부터 붉고 청단풍은 가을에도 푸르다
아, 입구가 너무 좁다 기어서도 들어가기 힘이 든다
차마 돌아갈 수 없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거꾸로 찍혀 있는 발자국처럼 거꾸로 들어간다
이미 흙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눈동자 속으로, 자궁 속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멀리 나팔관에서 나팔소리 들려오고
어머니의 심장소리가 들린다

동굴 속 축축한 어둠이 양수처럼 나를 감싼다 이곳에서
붉은 상사화 지는 것도 잊은 채
두어 달 어머니와 함께 종나무로 살다가 다시 태어나,

헛묘 1

정방폭포로 간다 정방폭포 앞바다로 간다 태평양으로 간다 혹시, 아는 사람이 뼈 한 조각이라도 가져왔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고향으로 간다 동광리로 간다 무등이왓으로 간다 삼밭 구석으로 간다 혹시, 살 한 점이라도 붙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다시 낭떠러지 위로 간다 절벽의 바위를 뒤횥다 폭포 아래 바위를 뒤횥고 물속을 뒤횥고 바닷속을 뒤횥고 바닷속 물고기들을 뒤횥고 물고기 뱃속을 뒤횥다 혹시, 숨결 하나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허공 속을 뒤횥다 더 높은 하늘을 뒤횥다 구름 속을 뒤횥다 빗방울 속을 뒤횥다

뒤지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지상을 떠난 뒤에도, 집 앞으로 몰려든다 죽어서도 몸을 찾지 못한 영혼들이 작은 단서라도 얻어들이려고 찾아든다 이렇게 찾아와 밤새 이야기하는 영혼들을, 살아 있는 사람들은 목백일홍이라고 말한다 백일홍나무라고 말한다 배롱나무라고 말한다 그 곁에 있는 충혼묘지에도 백일기도 하는 붉은 꽃이 있다 죽어서도 영혼을 찾지 못한 몸들이 있다

4월

1

새벽에 일어나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눈빛들이 반짝인다
마루에 서서 마당으로 오줌을 싸는
어린 내가 떨고 있다
예감이라도 한 듯
한기를 느낀 아이들이 떨면서
들어간다

2

아침에 소나무와 인사를 한다
새로 올라온 순에서 잎이 돌아난다
태양의 씨앗처럼 솔방울 씨앗도
불게 떠 오른다
부드러운 가지와 부드러운 잎이
가슴을 찌른다

3

오전에 바다를 본다
4년 전에는 병실에 누워

침몰하는 세월호 생중계를 보았다
오늘은 바다가 눈부시게 빛난다

4

해마다 4월이면
별들이 꽃으로 피어나 심장이 아프다
꽃들이 별들로 빛나서 가슴이 아프다
바다에 침몰한 눈빛이 빛나서 더욱 슬프다

서서 흐르는 강

강 끝에, 서서 흐르는 강이 있다

당산나무가 아이들을 업어 키웠다
하늘로 가는 강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강물을 따라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
바다 건너 강 끝에도
하늘로 흐르는 강이 있었다

빛살처럼 눈부신 모습으로
강을 기어오르던 아이들이 떨어지고
풍니 마을 야유나무 강물 속으로
피 묻은 총알 하나가 뛰어들었다

하늘로 오르던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강물 속으로
왈각, 폭포수가 쏟아져 들어왔다
어머니 체취가 함께 밀려들었다

<

강정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강정천에서 헐레벌떡
몸만 겨우 빠져나온 은어들이 소개령에 대하여, 금족령
에 대하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삼에 대하여 이야기하
고 있다 강정천 끝에도, 서서 흐르는 강이 있다 이제는
아이들을 업어 키우지 못하고, 바람만 업어 키우고 있다
허리가 너무 휘어서 하늘로 흐르지 못하는 강

오키나와로 가라고, 등을 후려치는 바람의 채찍에
구럼비 남쪽으로 활처럼 기울어지고 있는 여울목에서
나는 어머니처럼 붉은 알을 낳고 푸른 강물이 된다

동백

봄이 오는 길목으로 동백꽃이 지고
바람이 정신없이 불기 시작했다
동박새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동백나무는 더욱 시퍼렇게 겹에 질렸다

봄에도 겨울바람이 불고
여름에도 겨울바람이 불었다
온 계절이 겨울바람으로 가득했다
새해가 와도 봄은 오지 않았다

무자년 시월부터 이듬해 삼월까지
바람은 미쳐버리고
세상의 꽃들도 떨어져 밟혔다
꽃잎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를 이루었다

동백나무는 모두 보았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죽고, 무서워서 숨으면 폭도
라고 붙잡아가고, 술병 들고 제삿집 가다가 끌려가고,
키가 크니 산사람 같다며 잡아가고, 이발하던 이발사도
잡혀가고, 낚싯대 만드는 사람도 무기 만든다고 끌려가

고, 조 이삭 따러 갔다가 죽고, 김매러 갔다가 죽고, 소
여물 먹이다가 죽고, 도망가는 소 잡으러 갔다가 죽고,
설마 애기 업은 사람도 죽이라 믿었다가 죽고, 안고 죽
고, 업고 죽고, 아기 젖먹이다가 죽고, 우는 아기 입 틀
어막다가 죽고, 도망가다가 죽고, 숨었다가 죽고, 더 깊
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가 죽고, 맞아 죽고, 찢려 죽
고, 총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빠져 죽고, 불
타 죽고, 묻혀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아, 알 수 없는 때
죽음이여

세상은 온통 죽음뿐
동백꽃도 때로 죽고
동박새도 모두 죽고
그러나 아, 그 모진 세월에도
끝끝내 익어 가는 동백 씨
그 단단한 씨앗을 뚫고 껍데기를 뚫고
수없이 짓밟혀 딱딱해진 땅을 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
새싹들,

떡कु실낭

- "떡कु실낭에 올랑 오라방 죽는 거 봐도 어멍안틴 못골안"

#

입춘날 아침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발행한 『4·3과 평화』를 펼쳐 보았다
열두 살에 사삼이 지나갔다는 강순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영아 오빠는 한림국민학교에서 총살당해 여드랑밭에 묻히고
영보 오빠는 여드랑밭에서 일하다 끌려가 첫알오름에서 죽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멍은 밭에서 옷통을 벗고 훌쩍훌쩍
뛰고

나보다 가슴이 더 깊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아오는데
멸구슬나무가 자꾸만 나를 붙잡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머니 가슴처럼 주글주글한 열매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

봄이 관덕정 쪽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고 하였다
봄은 동백꽃들이 똑똑 떨어졌다고 하였다
감자공출 절대반대 보리공출 절대반대를 외치며
3·1절 만세를 부를 때에는 아직 미처 알지 못했다
푸른 잎들과 보라색 꽃들이 하늘을 뒤덮을 때였다
새들의 동지를 품고 밤낮으로 젖을 물리던 때였다
어느 맑은 날 나는 차마, 끝내, 보고야 말았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청년을 여드랑밭에 묻는 것을 보았다
큰바람에 밭담이 무너져 무덤이 없어지는 것도 보았다
첫알오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묻혔다는 소문도 들었다
검질을 매다가 옷통을 벗고 훌쩍훌쩍 뛰는
양쪽 가슴에 두 아들을 묻고 겨우 살아가는 어머니도 보았다
마을들까지 불태워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동쪽 어느 마을에 빈 가슴으로 살아간다는 불탄낭처럼
가슴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아, 내가 엮어서 키운 열두 살 소녀가 돌아왔다
재봉틀소리도 총소리로 들렸다는 그 소녀가 다시 돌아왔다
내 몸으로 염주를 만들어 나를 어루만지며 기도하고 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따뜻한 피가 돌며 또 다른 내가 돌아난다

탑

사람들은 이제 탑을 돌지 않고 탑 안에서 산다 철탑
이나 철근콘크리트탑 안에서 산다 나도 탑 안에서 탑을
쌓으며 살고 있었구나 일 년 동안 급하게 쌓은 탑이 무
너지니 비로소 오십 년 동안 쌓아온 탑이 보이는구나

창밖으로 눈발이 뛰어내린다

탑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끝장이다 창밖으로 뛰
어내리면 그 탑은 무너지고 만다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눈발을 보며 나는 퍼뜩 정신이 돌아온다

나의 탑을 다시 쌓으며 보니 나무도 나이트로 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무는 아직도 탑 속에 살지
않고 탑을 돌고 있다 탑을 둥그렇게 돌며 둥그렇게 길
을 만들고 있다 나이트를 둥그렇게 돌며 둥그렇게 쌓고
있다

워싱턴야자수

가지가 많은 팽나무 곁으로
가지가 없는 워싱턴야자수 한 그루 이사 왔다
그와 함께 살아온 것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가 이사할 때마다 늘 함께 이사를 다녔다
둘은 윌라봉 아래 사랑밭에서 처음으로 살림을 차렸고
꿈섬으로 같이 이사를 했다가
이제는 드디어 꿈숲에 꿈처럼 정착하게 되었다

그를 만나기 전에 황개천 공원에 잠시 살았던 기억이 있다
1년 만에 뽕혀 길가에서 불태워졌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뜨거운 불에 타서 이미 말라죽은 잎들과
검은 숯이 되어버린 잎자루를 잘라주고
다시 사랑밭에 정성껏 심어주고
불타는 갈증에 물까지 먹여 주었던 그의 손길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했다
땅속으로 파고드는 잉어 같다고 말했다
봉황의 뒤탈레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

그 워싱턴야자수는 몇 년 뒤 너무나 위태롭게
검은 새 한 가족을 길러내기도 했다
세상물정 모르고 등지를 잘 못 튼 그 검은 새 때문에
그 워싱턴야자수는 또한 얼마나 많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야만 했던가
자꾸만 아래로 쳐지려는 잎자루는
그 등지를 떠받드느라 얼마나 온 힘을 다하여 버티었던가
그때의 뼈아프게 힘든 기억 때문에
이제 다시는 어떤 새라도 가슴에 품지 않기로 작정했다
잎자루 가득 무서운 가시를 세워 달고
새가 가슴 속으로 접근할 때마다 잎을 심하게 흔들며 내쫓았다
그리고
꿈섬에서의 생활은 그도 그렇고 워싱턴야자수도 그렇고
물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나날이었다
그리하여 꿈섬은 물을 좋아하는 연꽃과 토란에게 양보하고
드디어 꿈숲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를 하면서 뿌리를 많이 다쳤지만
결에 든든한 팽나무가 있어서 그래도 안심이 좀 된다
잎자루를 둘로 쪼개서

제 가슴을 스스로 끌어안고 탐만 쌓아 올렸던 워싱턴야자수 한
그루
저렇게도 많은 가지를 키울 줄 아는 팽나무를 보면서
가지 하나 키울 줄 몰랐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고개를 떨군다
그렇게 제 아랫도리를 내려다보니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엉덩이가 커져 있다
거친 잎자루가 벗겨져, 속옷까지 다 벗어버린
속살 같은 엉덩이 위로 달팽이 한 마리 기어오르고 있다
제주배꼽털달팽이와 풀밭에서 함께 놀던 동양달팽이 한 마리
알락하늘소를 따라 워싱턴야자수 엉덩이 위로 오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두 뿔로 하늘을 들이받으며 오르고 있다

돌

섬은 돌로 만든 심장이다

돌 속에 묻어 놓은 솔이 깨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시절이 있었다 방사탑을 무너뜨려 성벽을 쌓던 시절이 있었다

한라산은 신에게 올리는 제사상이었다 오름들은 모두가 술잔과 밥그릇이었다

옥황상제께 올리던 백록담 술잔과 사라오름 퇴주잔에 솔이 마르면서 사람들은 돌집을 짓고 돌담으로 바람의 길을 만들었다

음복에 취한 바람이 퇴주잔까지 깨뜨리고 제사상을 뒤엎으면서 가슴에 돌덩이를 품었다 돌의 큰 가슴 속으로 숨어든 사람들이 있었다

빌레못동굴과 다랑쉬굴에서 솔이 깨지고 손가락이 부러졌다 너븐숭이 애기돌무덤에서 아직도 울음소리 들린다

<

돌담에 바람의 길이 있고 잣담에 발자국소리의 길이 있다 죽어서도 숨을 멈출 수 없는 산담에 영혼의 길이 있다 돌 속에 숨구멍이 있고 꽃자왈에도 숨골이 있다

바람과 파도가 바위를 갈아 몽돌을 만들고 있다 우리들의 가슴으로 다시 데워진 돌에서 새싹이 돌아날 것 같다 숨비기꽃이 피어난다 돌탑을 쌓는 마음으로 백록담 술잔에 달빛이 차오른다

구름 뒤에서 붉은 화산을 품은 시지포스의 돌이 구른다 굴러도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나는 땅에서 발자국소리와 숨소리를 듣는다 방사탑 안에 묻어둔 솔에 함께 먹을 쌀을 안친다 검은 돌 위에 쌀밥 같은 눈이 내리덮는다

바람의 말

귀뚜라미가 운다
가을을 기다려온 사람들의 귀에는
울음소리도 아름답게 들린다

천사의 나팔꽃도 시들고
악마의 나팔꽃도 시든다
해를 따라다니던 해바라기 날개도 마르고
가슴 속 가득 피어난 별꽃 짓꼭지들도 이운다
고개 숙여 제 발목을 내려다보는 까만 눈동자
해바라기 씨앗에 젖을 물리던 별들이 떠난다

햇모가 있는 동광 육거리에서 영어마을로 간다
무등이왓과 삼밭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김익렬 연대장과 김달삼 무장대 총책이 만나
4·28 평화회담을 했던 구억초등학교 찾아간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평화가 보이지 않는다
구억초등학교가 보이지 않는다
대정북공립초등학교가 보이지 않는다
노랑굴과 검은굴을 둘러보아도 향아리 하나 보이지 않는다

구억리에는 바람도 영어로만 말한다

붉은 노을 속으로 해가 지고
귀뚜라미가 다시 운다 아직은
바람의 말들을 알아들을 수 없어 나도 따라서 운다

잘 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를 잡고
메뚜기를 잡고
개구리를 잡고
참새를 잡고
팽을 잡고
토끼를 잡고
고라니를 잡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죽어 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몰랐다

나는 아직도
물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닭고기를 먹고
오리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말고기도 먹는다

그러면서도 나는
죽어 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내가 먹는
나물 하나도
내가 먹는
김치 한 조각도
그들의 푸른 피와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잘 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안다
나의 목숨도 나만의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너무나 잘 안다
나는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프르비행장 파랑새

알프르비행장에 파랑새 한 마리 착륙했다
단발머리 거인 소녀가 안고 온 파랑새 한 마리
하늘도 파랑새도 소녀도 옷도 모두가 대나무로 만들
어졌다

소녀의 대나무 옷을 스치니
내 마음속으로 대숲이 들어온다
파랑새도 함께 날아서 들어온다

대나무는 함부로 꽃을 피우지 않는다
한 계절에 한꺼번에 모두 다 자라고
남은 일평생 제소리만을 가다듬는다

중간에 베어져 책꽃으로 피기도 하고
죽창 끝에서 피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대나무의 소망은 오직 소리꽃으로 피는 것

한 백 년 쉬지 않고 소리 연습을 마치면
마침내 목이 터져 꽃 한 번 피우고
피리가 되어 가슴 속 파랑새를 불러 내리라

등에 기대다 1

등 뒤에서 안아주는 당신의 심장이
나의 잠든 심장을 흔들어 깨운다

어린 딸이 자전거 뒷자리에서
아버지 허리를 깊이 끌어안는다

나는 바람을 신고
떡갈나무 숲으로 간다

떡갈나무 잎들이 날아
등을 끌어안으며 쌓인다

새들이 날아오르고
하늘의 등이 반짝인다

해의 등을 한 번 안으려고
달이 부지런히 가고 있다

등을 보인 것들이 더욱 깊어진다

등에 기대다 2

옥상 맨바닥에 누워 하늘을 본다
등이 따뜻하니 하늘도 따뜻하게 보인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
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눈은 어찌하여 볼 수 있게 되었을까
귀는 어찌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마음은 어찌하여 느낄 수 있게 되었을까

별을 보니 별의 문구명으로
하늘 너머까지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바람소리 들으니 바다 건너 파도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파도소리에서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등 밑 시멘트는 시나브로 허물어져 내리고
넓은 모래사장으로 남아 파도무늬를 새긴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
카메라는 왜 순식간에 어떤 풍경이라도 빨아들이는지
카메라는 왜 끊임없이 시간을 저장했다가 돌려주는지
카메라는 왜 당신을 번쩍 안아다가 나에게 보내주는지

어둠의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나는 알 수가 없다

바다가 곁에서 말한다
너는 지금도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니
물방울 하나가 어찌 바다를 다 알 수 있겠느냐

꽃을 심다

어머니는 베릿내 숨비기꽃, 아버지는 한라산 참꽃,
할머니는 송령이골의 나팔꽃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한라산 올라가는 길은 참꽃
이 참 많았었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그곳에서 참꽃
을 자주 꺾어 오시고, 할머니 화전 안에서는 할아버지
와 큰아버지 꽃이 자주 피었다 아버지는 늘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말씀하셨다

큰아버지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겨우 빼돌리고 송령
이골에 버려졌고, 미처 고향을 빠져나오지 못한 작은
할아버지 가족은, 아주 나중에 현의합장묘에 모셔졌고,
할아버지는 한라산 진달래밭의 참꽃이 되셨다

피의 꽃으로 피어나는 난리가 끝나고 금족령이 풀려
도, 한라산에 올라가 오소리를 잡아 오시던 아버지는
언제나 오소리처럼 깊은 굴속에 숨어서 사셨다 지금도
송령이골 유골 방치터에 박혀 있는 진봇대처럼, 늘 양
쪽 가슴에 못을 박고 사셨던 할머니는 결국 큰아버지
곁에 누우셨고, 그 묘지에 아버지는 한라산 참꽃을 심

으셨다

송령이골에 배롱나무 세 그루 심었다 한라산 노루 밭
자국마다 참꽃 피어나기 전, 나도 뒤늦게 꽃을 심는다
강정으로 시집간 이모와 함께, 어머니 묘소에 숨비기나
무 심는다 나란히 누워계신 아버지 묘소에도 꽃을 심는
다 한라산 참꽃을 심는다 멀리서, 천사의 나팔꽃 피어
나는 소리 들린다

연

오래도록 연꽃을 바라보니
나는 연꽃이 되었다

오래도록 나무를 바라보니
연꽃은 목련꽃이 되었다

오래도록 산을 바라보니
목련은 산목련이 되었다

산목련 아래
따뜻한
나무의자 하나 있다

하늘이 내려와 앉을 때마다
함박웃음소리 남몰래 피어난다

이리 붙어라

내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붙어라 놀이하며 자랐다

검지 세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리 붙어라
우리 편 하고 싶은 사람 이리 붙어라
사탕 먹고 싶은 사람 이리 붙어라
이런 놀이를 하며
편 가르기 놀이하며 자랐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참 무서운 놀이였다
우리들은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법 보다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면서 자랐다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이리 붙어라 놀이에 정신이 없다

가을

입추 지나니 바람이 폭염을 식힌다
가을이 오는 소리 들린다
해바라기도 귀를 기울인다
벼도 수수도 뻗어가던 길을 돌린다
하늘로 향하던 길들이 땅으로 휘어진다
뒤돌아서 보니 비로소 발자국 보인다
마음속에 벗어놓은 발자국들 어지럽다
가을바람에 해바라기 꽃잎이 마른다
나의 젖은 발자국들도 마른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하여
저리도 바쁘게 갈팡질팡 살아왔을까
벗어놓은 신발부터 가지런히 놓아야겠다
가을바람에 매미소리도 얇아지고 있다
남은 시간도 열어지고 있다
내 가슴 속에도 사랑의 씨앗 하나 있을까
해바라기 씨앗처럼 잘 익어 가고 있을까
겨울이 오면
나는 나의 봄을 어느 깊은 곳에 묻을까
바람이 분다
가을바람이 분다

어지러운 그림자부터 지우기 시작한다
여름내 모기들이 점령했던 풀밭으로 간다
계절도 나를 따라서 쉬지 않고 순례한다
내 마음속 연못에서 종소리 들린다
연꽃잎 모두 날려 보내고 연밥이 익어간다

헛묘 2

추석날 아침 일찍 동광리 헛묘에 간다
밤새 뜬 눈으로 야간근무 마치고
오래된 트럭을 몰고 헛묘에 간다
평화로 가는 길을 간다
헛묘에 가려면 잠시 돌아가야만 한다
동광리에서 인육 이야기를 들었다

토벌대가 올라와 마을을 불사르고,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올레에서 죽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토벌대가 무서워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숨었다.
배고픈 개와 돼지들이 시신을 뜯어먹어도, 너무나 무서
워서 나오지 못했다. 며칠 후 토벌대는 다시 마을에
올라와 사람을 뜯어먹은 개와 돼지들을 잡아 맛있게 먹
었다. 그래도 마을사람들은 꿈쩍없이 숨어 있어야만
했다.

올해는 너무 가물어 코스모스가 제대로 피지 못했다
콩밭에는 아직 콩잎이 시퍼렇고
죽창처럼 뾰족하게 잘린 참깨 밀동
참깨 다 털린 깨대 다발 어지럽게 널려 있다

입구는 잠풀이 무성한데 묘지는 별초가 되어 있다
산담에 잘 자란 이끼가 아직도 젖어 있다
묘지를 지키는 배롱나무가 선홍빛 꽃잎을 내뿜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07-4번지, 헛묘가 이곳뿐일까
우리들의 가슴, 가슴 모두가 헛묘인 걸
그 헛묘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꽃을 보게 하는 일

육거리 지나 충훈묘지 배롱나무도 선홍빛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
트럭이 너무 오래되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갑자기 그날의 트럭 운전수 마음이 궁금해진다
학살터로 사람들을 짐칸 가득 싣고 가는 운전수의 마음
그런데 웬일일까
추석날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돼지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도살장 쪽으로 빠져나간다
평화로서 납읍 쪽으로 트럭 한 대 빠져나간다
짐칸에 실려 가던 돼지들이 예감이라도 한 듯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나는 너를 걷는 사람

가을 아침 일찍 곳자왈 숲길을 걷는다
아픈 심장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제 밤에 술을 먹지 못하여 행복하다
하나로 부족하여 발의 심장이 돕는다
빨리 걸을 수 없어 자세히 들여다본다
오래도록 바라보면 닳아간다고 했던가
나도 이제 곳자왈 맹아림을 닳아간다
저마다 상처에서 다시 태어난 나무들
당당하게 숲을 이루어 버섯들 키운다
나는 순례 중인 낙엽을 밟지 않으려고
돌들을 밟고 시나브로 걸어 들어간다
딱따구리 소리에 올려다보니 낙엽 난다
상록수도 잎과 평생 함께할 수는 없다
나뭇잎 따라 내려와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뭇잎의 영혼을 들고 일어나는 버섯들
고개 들면 양치식물들의 싱싱한 호흡들
아, 나는 오늘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아파서 행복한 사람, 죽지 않고 살아서
테우리길 지나서 가시낭길을 걸어간다
숨골에서 숨소리가 들려온다

은신처였던 유적지에서 숨소리 들린다
숫가마의 거주지에서도 숨소리 들린다
밟고 있는 돌에서 지구 숨소리 들린다
상처도 이렇게 잘 익으면 숲이 되리라
아름다운 숲에서 나도 숲이 되고 싶다
아름다운 고승들처럼 숲으로 들고 싶다
숲의 끝까지 들어가 낙엽을 덮고 싶다
숲이 될 수 있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

바다의 결

모래밭에는 파도의 발자국이 있다
파도가 벗어놓은 신발들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도의 결이다
서로 안고 나누었던 숨결이 있다
모래톱을 걸으면 툭질하는 소리 들린다
나는 자리를 옮겨 돌밭으로 간다
돌밭에는 젖어 있는 그림자만 보인다
그림자 사이로 밀려오는 목소리 들린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보말들이 뒤척인다
돌 밑에 숨어 있던 작은 게들도 내다본다
저 큰 바위 밑에 있을 문어는 거동이 없다
고개 들어 바다를 본다
서서히 바다가 밀려온다
수평선에서부터 일렁이다가 울렁이다가
중간쯤부터 앞발을 살짝살짝 들여보다가
두 손 두 발 하얗게 펼쳐 들고 덮친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해안선에서는 정작 앞전한 짐승이 된다
돌과 돌 사이로 먼저 들어온 물길이
해안의 돌들을 어루만지며 깨운다

돌들은 이내 몸을 부드럽게 내어주고
함부로 버려진 날카로운 유리조각들도
스스로 뽑았던 칼날을 몽그러뜨리고 있다

결에서 인동꽃은 마지막까지 별을 부르고
숨비기꽃, 까맣고 둥그런 알을 낳고 있다

동근 집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다

그에게도 가고
너에게도 갔다

하늘에도 가고
바다에도 갔다

어둠에도 가고
밝음에도 갔다

슬픔에도 가고
기쁨에도 갔다

시장에도 가고
사찰에도 갔다

온 세상 둘러보니
사랑이 제일이다

<
온 동네 살아보니
시인동네가 살만하다

모든 사람 만나 보니
당신 가슴 내 집이다

떨켜

나는 이제 발걸음 멈추고 겨울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부
름켜를 끄고 떨켜를 켜려고 합니다 아픈 심장을 다시 살리
기 위하여 꽃과 잎과 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바람을 따라 나의 뿌리로 또다시 오시거나 다른 나무의 뿌
리로 가시겠지요 나도 한때 당신의 꽃이었거나 혹은 잎이
었거나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잠시, 찬바람
속 겨울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봄에 다시 서로의
따뜻한 심장이 되기 위하여 나는 이제 겨울나무가 되어 땅
과 하늘을 불러들여 심장을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발걸음 멈추고 겨울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부름켜를 끄고 떨켜를 켜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꽃이
고 잎이고 과일입니다 당신은 겨울나무가 되어 땅과 하늘
을 불러들여 심장을 다독입니다

꽃을
잎을
열매를 위하여
떨켜를 켵니다

가만가만 심장을 다독입니다

시인

국어사전에서 '시인'을 부르면 열 명의 시인이 차례로 줄을 선다

당신은 시인1(尸咽)입니까 — 아픈 사람입니까

당신은 시인2(市人)입니까 — 장사꾼입니까

당신은 시인3(矢人)입니까 — 화살입니까

당신은 시인4(矢刃)입니까 — 무기입니까

당신은 시인5(寺人)입니까 — 내시입니까

당신은 시인6(侍人)입니까 — 시자입니까

당신은 시인7(是認)입니까 — 인정합니까

당신은 시인8(時人)입니까 — 그때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시인9(猜忍)입니까 — 시기합니까

당신은 시인10(詩人)입니까 — 시를 사는 사람입니까

'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시인(市人)인지,
시인(矢人)인지, 시인(寺人)인지, 시인(侍人)인지, 시인(時人)인지,
시인(詩人)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시인들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시인(市人)과 시인(詩人)이 잘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많은 시인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시인(詩人)들이 많아서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대나무

딱
한번
사는
우리
인생
푸른
죽창
안고
붉은
피꽃
피는
하늘
너와
나의
죽창
끝의
백년
대꽃
만파
식적

땅의
노래
평화
눈물

소와 달구지

나는 어린 시절 소를 타고 놀았다
소 등을 타고 놀며 피리를 불었다

자라면서 나는 스스로 소가 되었다
명예를 좇아지고 코뚜레도 하였다

세월은 나에게 달구지를 매달았다
나는 차라리 달구지가 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달구지가 되었다
달구지는 또한 달구지를 타고 싶었다

달구지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 불었다
잔잔한 강물소리에 콧노래가 나왔다

오르막길이 나오자 소의 숨이 차올랐다
달구지에서 내려 소와 함께 나란히 걸었다

언덕길을 다 오른 소가 길게 숨을 쉬었다
나는 다시 달구지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

<
내리막길이 나오자 달구지가 먼저 달렸다
소보다 먼저 나와 달구지가 함께 내달렸다

나의 소와 달구지는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와 달구지는 세월의 강물 속으로 빠졌고
소의 피리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떠돌았다

천년폭낭

1

풍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폭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팽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당산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당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서낭당나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자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2

얼굴책에서 우연히 나무 한 그루 사진을 보았다
살아 있는 낭췌 한 마리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뿔로 하늘을 들어 올리고 있다
쿵쿵쿵 지축을 흔들며 낭췌 한 마리 걸어가고 있다
텅, 텅, 텅, 걸어가면서도 똥을 잘 썬다
똥덩이를 보니 '상가리 천년풍낭'이라 쓰여 있다
지식의 바다로 헤엄을 쳐서 들어간다
살아 있는 낭췌는 코끼리가 되고 하마가 되고
거대한 전갈이 되고 거대한 하늘소가 된다
코뿔소가 되고 사슴이 되고 노루가 되고 토끼가 되고

백록이 되고 꽃모자를 쓴 설문대할망이 된다
나는 쇠기둥을 받치지 않은 낭췌가 더 마음에 들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나는 이제
천 년을 넘게 살았다는 그 폭낭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려야만 하겠다
속을 다 비우고 껍데기로 버티고 있을 나무 한 그루
뼈만 남아서 온몸이 뼈가 된 나무 한 그루
나이테도 다 버리고 기억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나무 한 그루
넘어지고 얻어터지고 허리가 꺾여서도
끝끝내 포기할 수 없었을 생에 대한 믿음 한 그루
나는 그 꿈과 삶에 대한 예의를 찾아서 가리라
그 간절한 마음은 꿈속으로도 이어져
연꽃이 있는 꿈속으로 먼저 찾아간다
천년폭낭이 낳아 기른 상가리
이 폭낭 아래서 차 씨, 주 씨, 현 씨 세 사람이 움막을 짓고
상가리로 발전하였다는 전설을 따라가니
올레에 조등이 걸려 있는 상가에서 도감으로 앉아
천 년 넘게 돛베고기를 썰고 계시는 할머니 계신다

3

나무라고 해서 모두가 나무처럼 사는 것은 아니다
나무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나무가 있다
거대한 곤충처럼 기어가는 나무가 있다
울퉁불퉁한 몸뚱이를 이끌고 천천히 하늘로 기어가는 거미
가 있다

살아 있는 낭췌 한 마리 하늘로 올라가 하늘소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진흙소 한 마리 숲으로 간다
바람소리 한 수레 싁고 허공 속으로 날아오르고 있다
상가리 천년폭낭을 보니 드디어 나무가 보인다
나와 무(無)가 함께 보인다
나보다 무(無)가 더 잘 보인다

4

길을 찾아보려고
홀로
밤새 길을 걸었다
아침에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니
카톡이 하나 와 있다

아, 오늘이

나의 생일이었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구나

5

천년폭낭이 알려준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처한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바람 불면 바람을 안고
비가 오면 빗물에 젖고
눈이 오면 눈물을 닦고
봄이 오면 하늘을 보고
여름 오면 그늘을 주고
가을 오면 뿌리로 가고
겨울 오면 하늘로 가라

6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
폭낭 아래 모여서 지낸다
천년폭낭 등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이
자꾸만 나에게 눈을 껌벅거린다
처음에 보고는
다른 나무가 곁에서 자라나서
함께 합쳐진 연리목인가 생각했다
자세히 보니
큰 바람에 쓰러질 때
엉겁결에 땅을 짚었던
왼손이었음을 알았다
하늘을 향해야 할 가지가
땅을 향하여
뿌리처럼 박혀 있는
그 나뭇가지가 자꾸만
내 눈에 밝힌다
쓰러진 몸으로도 잘 사는 폭낭
자꾸만 자꾸만 내 몸으로 들어온다
큰바람에 꺾이어 상체를 다 잃고도

다시 싹을 틔워 살아 나
자꾸만 자꾸만 나를 부른다
사람들이 받쳐 준 쇠기둥 다 버리고
온전한 자신의 뼈로 지팡이 삼아
새들을 품어 키우고
사람들도 그늘로 덮어주고
모두 모두 함께 잘 자란다
이어도공화국에도 그런 폭낭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7

천년폭낭도 처음부터 천 년을 산 것은 아니다

제주의 사계

제주의 봄은 사월에 피어난다
서천의 붉은 노을 꽃으로 피어난다
사월의 영혼들이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부활하고 있다

제주의 여름은 숨비기꽃으로 피어난다
바다 어머니들의 숨비소리로 피어난다
포작(鮑作)이 진상하던 전복을 잠녀(潛女)가 시작한 후
숨비기꽃은 더욱 낮게 옆드려 향기로 깊어진다

제주의 가을은 감귤 향으로 익어간다
천 년을 고통나무로 버티어
한때 대학나무가 되었던 감귤나무
동학농민전쟁이 벌어졌던 1894년에
비로소 폐지된 진상제도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주의 겨울은 한라산으로 온다
구상나무들이 하얗게 옷을 갈아입는다
곰과 사자와 호랑이가 흰 눈으로 나오는 길
설문대할망 자청비 영등신이 드나드는 입구도 보인다
가끔은 신(神)들을 따라 옥황상제가 그 길을 따라 내려온다

<
일만 팔천 신(神)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섬에
다시 사월이 오고 있다 사월의 겨울이 오고 있다
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겨울이 세상을 뒤덮어도
끝내 복수초는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나오리라
신(神)들이 벗어놓은 발자국마다 얼음새꽃이 따뜻하게 피어
나리라

여수 가는 길

거문도 섬 문을 들어서니 섬의 식구들이 정겹구나
다시 만난 식구들이 참으로 반갑구나
그리운 이들은 뒤편지만 보아도 반갑구나
일가친척들은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반갑구나
깨벽쟁이 친구들은 오늘도 진땀이와 나이먹기놀이에 정
신이 없구나
계집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수평선으로도 고무줄놀이
를 하는구나
구름들은 새끼줄로 기차놀이하며 섬 징검다리를 잘도 건
너는구나

제주도에서는 바다가 섬을 안아주는데
여수에서는 섬들이 바다를 품어주는구나

여수에서는 수평선도 마디가 있어서 더욱 정답구나
수평선 끝의 섬들도 부르면 대답할 수 있을 것만 같구나
수평선이 글썩 섬들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었구나

여수의 섬들은 가슴이 따뜻한 여수 사람들처럼
언제라도 나를 안아줄 듯 참으로 따뜻한 가슴이구나

<
수평선에도 징검다리가 있어
너에게 갈 수 있어 참 좋구나
네 가슴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참으로 따뜻하구나

제주도에서는 수평선이 섬을 감싸주는데
여수에서는 수평선에도 섬의 징검다리가 있어
너의 깊은 곳까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구나

거문도의 커다란 섬 문을 들어서니
섬의 식구들이 오손도손 정겹기만 하구나

여수에서는 누구라도
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혼자만의 섬이 아니구나

은하수 뿌리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대곡마을에는
은하수 뿌리가 있다
대곡마을에는 복된 산이 있고
크고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 골짜기의 웅달샘, 오두막에
아름다운 시인이 살고 있다
바다의 뿌리에서 날아온
여수의 젖은 나비처럼, 소라면 앞바다의 빨소라처럼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이 그곳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곳에서 켜졌음을 알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누구라도 시인이 되어
꽃빛을 켜고 별빛을 켜다
대곡마을 은하수 뿌리에서 오늘도
꽃들이 하늘로 기어오른다
은하수 뿌리에서 오늘도 심장의
꽃들이 피어나 반짝거린다

그대에게 가는 모든 반짝이는 말들이
뿌리에서 출발하여 먼 은하수를

지금 막 건너가고 있다

은하수를 건너며 다시 보니
떠내려가는 고무신 한 짝이 보인다
은하수 뿌리에는 내가 징검다리에서
어린 시절 잃어버린 고무신 한 짝이
있다 그 고무신 한 짝에 지금도
각시봉어가 살고 있다

종석산 정읍사

종석산에서 정읍사(井邑詞)

노래소리 들린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종석산 정읍사(井邑寺)에서

범종소리 들린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모든 것이 선(禪) 아닌 것이 없다

내 가슴속으로 들려오는

달빛 종소리, 요것은 도대체 뭇이다냐

옥정호에서 올라오는 물안개 발자국소리다냐

참나무 숲으로 숨어드는 밤의 숨소리다냐

참나무 그늘을 덮고 잠든 산삼들의 잠꼬대다냐

홀로 달아오른 산삼 열매들의 후끈거림이다냐

아, 나는 너무 오래도록 떠돌았던 장돌뱅이였구나

아, 나는 너무 오래도록 보지 못한 청맹과니였구나

<

제주공항에서 여수공항은 바로 코앞이었구나

이륙하고 추자도가 보이더니 바로 착륙이구나

여수에 도착한 나비는 연어의 종착역을 지나

옥정호가 있는 숲으로 날아가는구나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아, 참으로 먼 세월이 한순간이구나

종석산에서는 정읍사(井邑詞) 후렴소리 들리고

종석산 정읍사(井邑寺)에서는 운판소리 들려오는데

나의 지친 가슴속에서 환하게

꿈꾸던 숲에서 드디어 산삼꽃이 함께 영그는구나

《악학궤범(樂學軌範)》 정읍사

허그

아침 일찍 출근한다
나는 언제나 서둘러서 준비한다
평화로에는 벌써 불을 켜 차들이 많다
교통방송에서 알려준다 오늘은 허그데이란다
누군가를 안아주는 따뜻한 날이란다
나는 누구를 가장 깊이 안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누구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살아 있는 나를 가만히 안아주기로 한다
나는 나를 가만히 안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있을 당신도 함께 조용히 안아준다
세상은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교통사고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차를 멈추고 허그를 검색하니
'허기'의 강원도 방언이라고 알려준다
나는 어쩌면 오늘도 허그에 허기가 져서 외롭다
우리들은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허그에 허기가 져서 교통사고를 꿈꾸기도 한다

꿈은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자동차 한 대

결국 빵, 앞에 달려가던 자동차를 힘껏 안고 비명을 지른다

아,

오늘도 한 번 안아 보려고
바다보다 깊은 어둠을 건너온
나는 오늘도 그대를 안을 수가 없다
동쪽 하늘은 열리고, 얼굴부터 붉어 오는데
서쪽 하늘에 달은 보이지 않고 구름만 가득하다

나와 그대는 언제쯤 안아 볼 수 있을까
달과 태양은 언제쯤 안아 볼 수 있을까

오늘도 빈 등대 불빛만 아침까지 깜박이고 있다

뱀

뱀은 손과 발이 없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뱀은 콧구멍이 없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뱀은 눈꺼풀이 없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뱀은 수백 개의 갈비뼈로
온몸과 온 마음으로
땅의 영혼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삼보일배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체투지 같은 절실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동안거에 들어가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소신공양까지 불사하는 뱀들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뱀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만큼만 먹고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는 평화주의자의 마음으로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 기어 다니다가
길쭉한 소주 뒷병 속에서 비로소
몸속 사리 같은, 마음속 모든 독을 토해내고
비로소 하늘을 향해 꼴꼴하게 서서 보는
뱀술 같은 뱀의 운명이며, 또 다른 나의 운명이며

구렁이 한 마리, 나의 발가락 앞으로 지나간다

탱자나무

나는 가시가 무기인 탱자나무였다
시고 씨가 많은 탱자에서 태어났다
나는 주로 울타리가 되어 살았는데
목구멍에 가시가 박혀 기침을 하며
하얀 가래 같은 흰 꽃들을 뱉어냈다

아이들은 나의 긴 팔을 잘라다가
활을 만들어서 놀기를 좋아했고
겨름대로 만든 화살들이 부러지면
내 몸을 감으며 올라온 박주가리
그 빛나는 낙하산 같은 씨앗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함성소리들

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나의 밑동을 싹둑 잘라내고
나를 감귤나무로 만들기 시작했지
나를 글썸 감귤나무로 만들었다니까
단맛이 좋다며 감귤나무로 만들었어

그렇게 나는 씨도 없고 배알도 없는

눈물주머니가 되어 살아야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문득 돌아보니
내 몸과 내 마음속이 온통 깍지벌레야
가루깍지벌레, 말깍지벌레, 솜털깍지벌레, 알깍지벌
레, 이세리아깍지벌레, 루비깍지벌레, 좀깍지벌레...,
너무 많은 깍지벌레들이 달라붙어 나의 즙을 빨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러다가 나는 곧 죽고 말겠지
깍지벌레들은 나무를 통째로 죽이고 말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또 한 번 살아보려고
있는 힘껏
몸 안에 숨기고 살았던 가시들을 불러내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힘껏 탱자나무로 돌아가고 있
다

무화과나무

나는 가인의 후예일까 아벨의 후예일까
나는 셋의 후예일까 아담의 후예일까
나는 이브의 후예일까 뱀의 후예일까

세상의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하였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자식이 분명하다
태초의 처음은 없음에서 출발하였으니
나는 그 없음의 자식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가 형제자매가 분명하다
너도나도 모두가 형제자매가 분명하다 뱀도 그렇고 곰과 호랑
이도 그렇고 여우와 늑대도 그렇다 고양이와 돼지도 그렇고 토
끼와 사슴과 새들도 모두가 다 한 식구가 분명하다 원숭이와
코끼리와 낙타와 사자도 한 식구가 분명하다 나무늘보와 개미
핥기도 우리들의 한 식구가 분명하다 소와 말과 개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자란 것이 없다

하나님은 깡패나라의 두목이 아니다
하나님은 푼돈이나 뜯어먹는 양아치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식들을 사랑할 뿐
그 어떤 재물이나 예배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뇌물도 바라지 않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십일조 뇌물을 바치려고 한다
인간들은 자꾸만 보험용 뇌물을 상납하려고 한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서로 나누기를 바라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아부하려고, 하늘에 뇌물을 상납하려고
형제자매들의 재물을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한다

아무리 보아도 하늘에는
지상의 재물을 쌓아 둘 창고가 없다

내가 사는 에덴동산에는 이제
하느님도 살고 단군할아버지도 살고 설문대할망도 함께
살아간다
부처님도 살고 공자님도 살고 예수님도 함께 모여서 정답
게 살아간다

성경책도 읽고 팔만대장경도 읽고 사서삼경도 읽으며 살아간다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반야심경을 외우며 살아간다
가끔은 페이스북 속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며 살아간다
무화과나무 아래로 모세의 지팡이 같은 뱀이 한 마리 지나간다

나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도 없어서

뱀을 집어 들지 못한다

무화과나무 잎이 넓은 그림자를 벗어나 잠시 흔들린다

무화과나무 열매 안쪽에서 꽃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다

오메기

하늘에서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다
잘 갈아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

무등이왓 조밭이 햇살에 익고 있다

무등이왓 오메기밭이 햇살에 익고 있다

잠복학살터 곁에 있는 조밭에서 술렁거리는 소리 들린다
'잃어버린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이란 글자에 녹이 슬어 있다
그날, 정방폭포 위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한결같은 오메기 이삭들이 고개를 깊숙이 떨구고 있다

큰넓궤와 도엣궤로 숨었다가, 영실 불레오름까지 쫓겨갔다가
정방폭포에서 충을 맞고 떨어져 바다가 되어버린 사람들
파도소리 들리는 헛묘의 나무 백일홍 영혼처럼
조 이삭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오메기 이삭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새들이 먹지 말라고 썩워놓은 푸른 양배추 망들
그 속에 갇혀 있는 조의 모가지들이, 오메기 모가지들이
함께 학살당한 가족들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말 목장의 말들도 보이지 않고

탕건 망건 양태 차롱 만들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의 구름들이 굿판을 벌이고 있다
시인들이 시를 낭송하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춤꾼들이 춤을 추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다
심방이 굿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조밭에서 오메기떡 냄새가 난다
조밭에서 오메기술 향기가 난다
조밭에서 오소리술 향기가 난다
큰늪궤와 도엿궤에서 잘 숙성된 술은
헛묘에 올려질 것이고 정방폭포에 뿌려질 것이고
영실 볼레오름에 뿌려질 것이고 큰늪궤에 뿌려질 것이고
여수로 갈 것이고 광주로 갈 것이고 지리산으로 갈 것이고
오키나와로 갈 것이고 베트남으로 갈 것이고 미안마로 갈 것
이다

그런데 아,
잃어버린 마을, 조릿대들만 무성한 마을에 들어선

저 거대한 건축물은 도대체 무엇이더냐
저 거대한 십자가는 또한 도대체 무엇이더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학살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저 하나님의 궁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꿈의 사다리이더냐

하늘에서는 연자방아가 돌아
잘 갈아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데
무등이왓에서 돌던 연자방아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이 가득 담겨 찰랑거리고 있다

노아의 방주

내가 사는 언덕면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이타미 준 선생님이 설계한 방주교회가 있다
유동룡 선생님의 숨결이 숲을 이루고 있다

수풍석 박물관도 있고 두손 박물관도 있고
포도 호텔도 있다 한결같이
내가 사는 산방산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

나는 비가 오는 날에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비를 맞으며 이어도공화국에서 돌길을 만든다

돌탑을 쌓을 때와
돌담을 만들 때와
돌길을 만들 때는
돌 모양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다

하늘을 받들 것인가
바람을 받들 것인가
사람을 받들 것인가
<

우리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될 때
자신의 시신을 치워 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을 은근히 사랑할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돌탑이 되어 보기도 하고
돌담이 되어 보기도 하고
돌길이 되어 보기도 한다

더욱 깊어지는 푸른 하늘이
푸른 바닷속으로 깊이 걸어서 들어가고
늪에서도 더욱 푸르러지는 청춘 하나
스스로 가을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겨울을 덮고 긴 꿈속으로 누워서 잠이 든다

탐라국 창세기

땅 위에는 바람이 불고 있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는 왕래하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다

제주공항에 시조새와 익룡들이 날아오른다

저 무서운 새들은 우리들의 까마귀일까 비둘기일까

설문대할망의 방주는 오늘도 물 위에 떠 있다

사람들의 홍수에 떠내려간 것들이 있다

아스팔트 홍수에 떠내려가 버린 것들이 있다

제주공항 아스팔트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이 묻혀 있다

물 가운데 섬 하나 만들고 섬 가운데 산 하나 만들고

너무 지쳐서 한라산으로 누워계신 설문대할망

아, 언제 다시 일어나 하늘로 가는 다리를 놓으실까

아직도 탐라국 창세기를 쓰고 있는 탐라국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쫓겨난 인디언들을 생각한다

이방인들과 끝까지 싸워 몰아낸 참파왕국 사람들을 생각한다

<

정재수와 김달삼과 이덕구는 가고 없지만

화순과 위미에서 몰아냈던 해군기지는 강정에 들어서고 말
았지만

공군기지만은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가열 찬 탐라국의 후예
들을 본다

탐라국 사람들은 오늘도 설문대할망과 일만 팔천 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탐라국을 함께 만들고 있다 하늘로 가는 다리를 놓
으려고

아흔아홉 통의 명주실로 설문대할망의 치마를 다시 만들며

마지막 한 통을 더 준비하려고 열심히 누에까지 기르고 있다

이방인, 육지 것인 나는 언제쯤 탐라국 사람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한라산이 되지 못하고 제주바다의 물고기로 살
아가고 있구나

제주바다에는 아직도 거대한 설문대할망의 방주가 흔들리고
있구나

말

말
뛰다
말이다
말이 뛰다
말들이 뛰다
말이 달린다
말들이 달린다
말 없는 말이 뛰다
말 없는 말들이 뛰다
말 많은 말이 달린다
말 많은 말들이 달린다
말들이 평화로를 달린다
말들이 자동차와 함께 달린다
말들이 비를 맞으며 평화로를 달린다
경마장에서 뛰쳐나온 말들이 평화로를 달린다
말들이 평화로를 달린다 이어도공화국으로 간다
말들과 함께 말 많은 세상을 달려 이어도공화국으로 간다

고양이

꼬리 잘린 얼룩 고양이 한 마리
새끼 일곱 마리 데리고 놀고 있다
나도 함께 놀아보려고 다가간다

새끼들은 쪼르륵 집으로 돌아가고
어미는 반대쪽으로 나를 유인한다

꽃향기에 홀리듯 고양이 따라간다
꿈같은 고양이들의 천국이 있다

대문 없는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니
고양이들이 몰려와 배불리 먹고 논다

안쪽 거실에도 하얀색 고양이가 있다
밥그릇도 더 빛나고 놀이터도 더 좋다

창문 안쪽의 고양이는 바깥쪽을 향하고
창문 밖 고양이들은 안쪽을 향하고 있다

길

바다로 가는 길이 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있다
수평선 너머
이어도 가는 길이 있다
너에게 가는 길이 있다

구부러진 길이 있다
갈라 터진 길이 있다
바다 되는 길이 있다
하늘 되는 길이 있다
섬이 되는 길이 있다

젖은 발로 걸어가는 길
노을 젖어 걸어가는 길
자기 몸을 밟고 가는 길
마음속을 밟고 가는 길
나무 되어 걸어가는 길

스스로
나무 기둥 속으로

물이 되어 올라가
바다가 되는 사람
하늘이 되는 사람
구름이 되는 사람
이어도 되는 사람

놀란흙

나는 5무(無) 농업을 한다
무경운, 무농약, 무제초, 무비닐, 무비료
나는 흙과 한 식구라서 죽일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흙이 놀라 자빠지는 것을 보았다
쟁기가 지나가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함께 쓰러졌다
토성에서 온 나는 흙의 가슴으로 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호미 하나로 농사를 지었다
가난했지만 지금은 반월산 흙집에서 잘 산다

요즘 사람들은
호미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괭이나 쟁기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

옆 밭에서 트랙터로 갈아뭇개고 있다
놀라 자빠지는 것을 넘어 아비규환의 표정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흙의 목숨은 겨우 붙어 있다

결에서 포클레인이 길을 만들고 있다
흙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목숨들을 몰살시킨다
검은 아스팔트의 공동묘지 위로 사람들은 달린다

흙에서 온 사람들은 흙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 속
으로 뛰어든다

